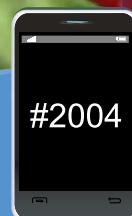
2013.03.04 NO.198
korea.kr/gonggam

Weekly 공감

나눔은 희망을 만드는 투자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오스카 쉰들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손아귀로부터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낸 인물이다.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 〈쉰들러리스트〉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구원이 있었다. 생명이 구해지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단 한 명의 인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한 사람이 실천하는 희망이 타인의 삶에 어떠한 기적을 가져오는지 경험하고 있다.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5명의 아이를 후원했던 철가방 기부천사 고(故) 김우수씨,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마련한 1,000원을 모아 후원금을 보내주신 양영복 할머니 이야기 등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미담 속 영웅들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우리 자신과 주변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영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채리티즈에이드재단(CAF)이 조사한 2012년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5위로 2010년 81위, 2011년 57위에 이어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가들에 비하면 경제 성장속도에 비해 나눔의 성장속도는 더디다는 생각이 든다. 2012년 세계기부지수에서 1위를 한 호주의 경우 기부를 단순한 개인의 선행이나 자선의 개념이 아닌, '합리적 경제행위이자 사회적 투자'로 인식한다고 한다. 사회구성원이 '나눔'을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던 나눔은 행동으로 옮길 때 삶의 성숙과 함께 활력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기부를 '합리적 경제행위이자 사회적 투자'로 인식한다고 한다. 사회구성원이 '나눔'을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좋은 투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21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린다. 그 계층은 주로 노인·조손·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령화와 국제결혼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빈곤계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내 주변의 한 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위기 속에서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눔'이라는 건강한 투자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좋은 투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눔은 그 마음을 체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움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당신의 실천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 수 있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기획특집
국민이 부르는 '2013 희망의 노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이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야 한다. 어둠의 끝에 빛이 있듯,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 희망이 기다린다.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다.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할 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진다. 국민은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아 기르고, 땀 흘려 일한 가치를 존중받고, 늙어서 자식 눈치 안 보며 큰소리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표지 이야기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충만한 의욕이 엿보인다.
표지사진 · 연합

중점기획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❶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다음호 알림 초등생 그림일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3월 11일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199호에는 초등학생들의 그림 13점이 게재됩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라는 주제로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그렸습니다. 어린이다운 깜찍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는 물론, 세상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엿보입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03.0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2일(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나이 먹을까봐 떡국 안 먹는다 그랬어요"

다문화 며느리들의 설 이야기 흐뭇

196호 '다문화가족의 설' 기획 중 동남아 출신 며느리 3명의 설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 우리 고유의 설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을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고국의 명절음식 대신 동태전이나 만두를 빚고 생소한 떡국을 먹었을 그분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상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볼 기회는 드물었습니다. 설이 되면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TV에 나와 조금은 어눌한 한국말을 열심히 구사하며 가벼운 경연을 벌이는 외국인들의 모습에 익숙한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우리의 이웃에서 다문화가족이 우리와 함께 명절을 쇤다고 생각하니 격세지감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기사였습니다.

이런 기사 다뤄주세요 〈위클리 공감〉에서 여성 리더들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 상징하듯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더욱 부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딸들이 여성 리더들을 역할모델로 삼아 각자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김용희 (주부·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지난호를 읽고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예산지원 늘려야

195호 '우주강국으로 가는 위대한 신호탄'을 읽고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강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과학기술자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이룬 업적이라고 하니 더욱 돋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주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을 늘리고 개발인력도 대폭 충원해야 할 것입니다. **배을순 (주부·부산 북구 화명동)**

세계무대서 활약하는 젊은이들 이야기 뿌듯

194호 기획특집 '글로벌 영 코리안'을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을 실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각 분야의 세계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데니스 홍 교수가 개발한 로봇을 우리의 일상에서 곧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다운 (학생·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기성세대로서 내가 걷는 길 확신 생겨

194호 기획특집 '글로벌 영 코리안' 가운데 하버드법대 석지영 종신교수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와 도전의식을 되살려줬습니다. 진로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해 갈등하는 청년세대나 자신이 품었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기성세대에게 귀감이 됐으리라 봅니다. "공부는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석 교수의 조언이 제가 걷는 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소영 (주부·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문화시대 대한민국, 배려와 나눔 필요

196호 '다문화가 우리 사회 도약의 열쇠'를 읽고 다시금 다문화사회를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다문화가족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고 수용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려와 나눔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길필순 (주부·부산 북구 화3동)**

'대한민국예술원상'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제58차 대한민국예술원상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쌓았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예술원 회원과 기 수상자는 제외합니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추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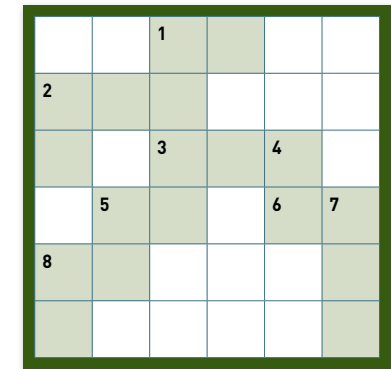
접수기간 3월 7일~4월 5일
시상부문 ①문학 ②미술 ③음악 ④연극·영화·무용(4개 부문별 1명씩)
후보추천 –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 예술단체의 장
– 예술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교의 총장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경력증명서·저서·논문 등 증빙자료 각 1부
시상내용 상장·메달과 상금(부문별 5,000만원)
문의 02-3479-7232~4 www.naa.go.kr

비만예방디자인을 공모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비만예방디자인을 공모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비만 예방입니다. 일상에서 건강한 실천을 유도하는 포스터와 캐릭터를 디자인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팀으로 참가 시 3인 이내)
공모주제 비만 예방을 주제로 계단·엘리베이터·식당 등에 부착해 운동·영양 등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내용(포스터·스티커·표지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
공모부문 포스터·캐릭터
시상내역 대상 2편(포스터부문:보건복지부 장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캐릭터부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상금 100만원), 가작 2편(상금 50만원), 장려상 5편(상금 30만원), 입선 20편(상금 10만원)
응모기간 3월 22일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www.designkahp.com)
출품방법 – 출품 수 : 제한 없음
– 작품규격 : 297×420mm(3,508×4,961pixel) A3 Size(가로형, 세로형 모두 가능)
– 작품용량 : 2MB 이내로 제한(JPG 파일)
– 제출파일 : JPG(단, 1차 선정작에 한해 PSD, EPS 또는 AI 파일 제출)
– 원본 파일 미제출 시 2차 심사(본심) 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작품에 주최·후원기관 로고 삽입(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문의 02-334-9044

낱말맞추기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 맞추기 198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14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대한독립○○~!"
2. 취임할 때 하는 인사말.
3. 스위치를 올리면 몇 초 후 불이 밝혀지죠.
5.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새 정부는 국민과 ○○하는 정부"
6.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함.
8.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 "꿈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각계각층 ○○의 메시지"

세 로
1.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 "새해에는 ○○○○하시길 바랍니다."
2. 일자리를 가짐. 일정한 직업을 가짐.
4. 깜깜한 밤바다를 가는 배에 길을 밝혀주는 것.
5. 어떤 일을 바람.
7.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화합물. A, B, C 등으로 표시하죠.
8. 나이 일흔일곱 살을 달리 이르는 말이죠.

〈위클리 공감〉 195호(2월 4일자) '공감 낱말 맞추기' 정답
가로 2 느티나무 4 소리 6 호시절 7 자아 9 까치
세로 1 며느리 3 나로호 4 소비자 5 명절 8 아까

〈위클리 공감〉 195호 '공감 낱말 맞추기' 당첨자
이용선·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손민정·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민희·경남 사천시 정동면 한만영·충남 아산시 시민로 329번길
김상호·광주 서구 치평동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독도학교 4월부터 대국민 역사교육

현장답사 등 4개 프로그램 운영…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도 본격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맞은 제94주년 3·1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주권과 영토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3·1절을 즈음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우리 국민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독도와 나라 사랑을 일깨우기 위한 '독도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3월 새 학기를 맞은 각급 학교에서도 다양한 독도교육을 실시한다.

제94주년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거행되는 첫 국경일 행사로, 독립운동 관련 단체를 비롯해 3부 요인과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사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청소년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3·1절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의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국내·외 사료 등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고 김화서 선생 등 독립유공자 75인을 포상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대표적 다문화가정 출신 가수인 인순이씨와 역경을 이겨내고 야식 배달부에서 '희망 배달부'로 변신한 성악가 김승일(36)씨가 함께 애국가를 선도해 주목받았다.

행정안전부는 3·1절 기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일부터 3·1절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비롯해 주민 참여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해 온 국민과 함께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가보훈처는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독도학교 개교식을 거행했다. 독도학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식시키고 ▶체계적 역사 체험학습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중앙포토

우리에게는 독도가 있다. 우리의 미래에도 독도는 있다. 지난해 8월 14일 한국해양재단 주최 해양영토대장정에 참여한 대학생 100여 명이 독도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했다.

2013년도 독도학교 교육 프로그램

구분	대상	장소	시간	내용	교육생 모집
초등단체교육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별로 초등 고학년 1학급 30명 내외 (총 1,500명)	독립기념관	4~11월 주중(50회)	독도 멀티미디어 강의, 전시관 탐험 및 체험활동	1월 31일~ 마감 때까지 선착순
가족캠프 '독도야! 놀자'	회당 가족 40명 (연간 360명)	독립기념관	4~6월, 9~12월 둘째 주 토·일요일(8회)	독도의 역사, 자연 등을 쉽게 이해하고 알리미 활동을 실천하도록 돕는 캠프	매달 교육 전 20일부터 마감 때까지 선착순
답사교육 '독도로 가자'	독도학교 참가자, 외국인, 개교식 참가자 (연간 160명)	독도	여름방학 2박3일(2회)	독도 답사	온·오프라인 참가자 중 선발
관람객 대상 교육 '전시관에서 만나는 독도 이야기'	가족 단위 입장객 (연간 960명)	독립기념관	4~6월, 9~11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12회)	일제 침략과 독도 이해를 돕는 자율체험 제공	교육 당일 현장 접수

자료·국가보훈처

독도학교 초대 교장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독도학교 초대 교장으로는 최근 몇 년간 <뉴욕타임스> 등 해외 유력 일간지에 독도 광고를 게재했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개교식에는 서 교장 외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능진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및 독도 관련 단체, 독도학교 교육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독도학교는 오는 4월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다양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초등단체교육(1,500명),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360명), 전시관 교육(960명) 및 독도 현장답사 교육(160명)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도와 독도학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독도학교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독도학교 활동가들 중 우수자를 선발해 독도 답사 기회도 제공한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가입자면 누구든 온라인 독도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기리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을 본격화한다. 기념관은 2013년 설계를 발주해 2016년 완공할 예정이다. 기념관 건립에는 울릉군 내 연면적 1,470평방미터에 총 공사비 129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올해도 전국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집중교육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씩 독도를 둘러싼 동북아 영토분쟁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 3월부터 학교별로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영토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2010년 독도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1년 독도에 관한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연간 10시간의 독도 관련 수업을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유하고 있다.

독도사랑 실천 '독도지킴이 거점학교' 공모

교육과학부 동북아역사대책팀 송미화 교육연구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최근의 독도교육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재단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하게 체험중심 독도교육이 가능하도록 생활 주변에서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국내·외 '독도지킴이 거점학교'를 공모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65개 초·중·고교가 독도지킴이 거점학교로 선정됐다. 올해에도 3월 12일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도지킴이 거점학교로 선정되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독도지킴이반·독도사랑반 등을 운영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도지킴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동북아재단에서는 연간 약 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를 직접 탐방해 독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독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독도학교 문의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02-2020-5216
독도아카데미 www.dokdoacademy.com 02-736-8420
독도체험관 www.dokdomuseumseoul.com

독립유공자 여성 3인 포함 75명 훈·포장

의병장 김화서 선생 등 72명은 정부가 적극 발굴한 유공자

올해 열린 제94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75인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정부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포상자 중 72명은 정부가 발굴한 유공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포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3명, 독립장 806명 등 모두 1만3,167명에 이른다.

경남 일대에서 독립활동 군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돼 순국한 김화서 선생을 비롯한 75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3·1절을 맞아 정부의 훈·포장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3월 1일 제9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화서 선생을 비롯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75명을 포상했다. 이번 포상자는 건국훈장 51명(애국장 17, 애족장 34), 건국포장 10명, 대통령표창 14명이다.

이번 포상자 가운데 여성은 3명이며, 생존자는 임광세(90) 선생이 유일하다. 황해도 개성이 고향인 임광세 선생은 1944년 8월 서울에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본과 2학년) 재학 중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가입해 당원모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 임 선생은 그 해 12월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1945년 6월 석방됐다.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은 1943년 여름 일본 도쿄에서 조직된 비밀결사다. 학병 기피자들이 모여들면서 조직이 강화되자 국내로 거점을 옮긴 뒤 일제 패망에 대비해 무장봉기를 준비하며 전국 단위로 조직해 활동했다. 조선 엘리트층의 독립운동 참여와 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포상자 가운데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김화서 선생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일제의 강제합병 직전까지 경남 합천·안의·거창 등지에서 30여 명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독립운동을 했다. 1909년 3~10월 10여 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집하다 일경에 체포돼 교형으로 순국했다.

김화서 선생과 함께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다 체포돼 순국한 심낙준(애국장)·오낙삼(애족장)·김유준(애족장)·송영수(애족장) 선생도 이번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서 6월까지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3·1정신을 민족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2월 28일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남 천안 병천에서 열리는 '아우내 봉화제'를 시작으로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충남 천안은 물론 경기 화성 제암리 발안장터, 경북 안동, 전남 순천 낙안면, 강원 영월 주천면, 제주 조천읍 등 전국 65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지역별로 2월 말부터 6월까지 청년회의소·지방문화원·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린다. 당시의 만세운동을 사실적으로 재현함은 물론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각종 공연·체험행사 등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3·1절 80주년인 1999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94주년인 올해에는 전국 65개 지역이 참가하는 범국민 축제행사로 발전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가는 대규모 독립기념행사가 되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2-2020-5224

역사로 생생히 남게 된 선열들의 희생정신

김화서 선생 등의 활동은 같은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다 체포돼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가까스로 피신했다가 26년 만에 다시 일경에 체포된 전성구 선생의 증언기록(《동아일보》 1934년 10월 21일자)에서 확인됐다.

3·1운동 당시 서울의 독립선언서를 함남 원산에 전달해 현지에서 만세운동을 촉발한 곽명리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곽명리 선생은 1919년 2월 28일 서울의 3·1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인 오화영 선생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0~300매를 받아 함남 원산의 요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선생은 이 일로 원산 지역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일경에 체포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1일 부산 동래시장 입구 만세거리에서 열린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참가한 6,000여 명이 힘차게 만세를 부르고 있다.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한 강우규 의사(1962년 대한민국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 체포된 탁명숙 선생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됐다. 서울 구세병원 간호부로 일하던 탁명숙 선생은 1919년 3월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같은 해 9월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한 강우규 의사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 다시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무장투쟁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까지

1920년대 중국 남만주의 주요 무장독립운동단체에서 군사지휘관으로 활약한 안홍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서울 출신의 안홍 선생은 1922년 중국 남만주에서 광복군 총영의 모험대장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대한통의부 호위대장 및 제5중대장·헌병대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북만주 방면으로 거점을 옮겨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30년경 무장투쟁 현장에서 병사할 때까지 평생을 중국 남·북만주를 무대로 한 항일무장투쟁에 헌신했다.

1920년대 초 평남 강동에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려다 체포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서달선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서달선 선생은 1920년 상하이 임시정부를 후원할 목적으로 동지들과 함께 농민단을 조직했다.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으며 폭탄 투척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일제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선생 등은 농민단을 조직한 뒤 "군자금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서에 폭탄을 던져 민심을 동요케 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1920년대 함북 회령에서 임시정부의 국내기관 설립을 위해 애쓰다 체포돼 징역 2년의 고초를 겪은 최환순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최환순 선생은 1920년 음력 5월경부터 회령에서 동지들과 함께 간도에 본부를 둔 국민회 지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국내에 독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회령에 임시정부 연통제 독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문서를 동지에게 전달하다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G

글·박경아 기자

국정공백 없게 긴급 현안 꼼꼼히 점검

2월 27일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국회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후 경축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각국 고위인사들과 친선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2월 27일에는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민생과 국정현안을 챙겼다. 제18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는 박 대통령 취임 당일 개설돼 국민을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7일 오전 10시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섰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 대변인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각 분야 현안과 청와대 업무의 조기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징수보다 먼저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과 서민층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간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으로 직제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취임 이튿날 19차례 외교사절 접견

앞으로 박 대통령은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현안을 챙기기 위해 매주 한 차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핵심 회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매주 두 차례 열고, 비서실장 주재 일일 상황점검회의는 매일 오전 8시에 열어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6일 청와대를 예방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과 환담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6일 토머스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있다.

제18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개설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eongWaDae
트위터 twitter.com/BluehouseKorea
미투데이 me2day.net/thebluehouse
유튜브 www.youtube.com/cheongwadaetv
블로그 blog.president.go.kr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www.facebook.com/ghpark.korea
플리커 www.flickr.com/photos/withghpark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가 2월 25일 개설됐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는 청와대 소식과 대통령 동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광장, 청와대 안내(청와대 관람), 어린이 기자단 코너를 두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홈페이지에서는 박 대통령의 프로필, 저서와 함께 '10대, 20대 시절' '퍼스트레이디 시절' '아픔의 시절' '정치인 시절' 등으로 구분한 갤러리도 찾아볼 수 있다.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화외교에 나섰다. 먼저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의 관계 발전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 협력 방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반 총장과 통화에서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이후 취임식을 위해 방한한 각국 정상을 비롯한 경축사절단과 잇따라 접견하며 바쁜 외교행보를 이어왔다. 취임일인 25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식적으로만 14개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식 오후에는 축하 사절로 참석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접견했으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경축연회에 참석한 후 다시 류옌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미첼 바첼렛 전 칠레 대통령,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부총리,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우호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이틀째인 2월 26일에는 존 스톤 캐나다 총독과 정상 환담을 시작으로 미국 특사단 접견 등 무려 19차례의 접견 일정을 소화했다. 하루 동안 20분 단위로 정상급 인사와 사절단을 만나 회담 중간중간 휴식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논의를 했다. 토머스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특사단 접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미 공조를 부탁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뤄지기를 희망했고,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양국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미 특사단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공조 당부

이어 박 대통령은 후쿠다 모리 전 일본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는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의원외교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호주의 쿠엔틴 브라이스 총독과 정상 환담에서는 1968년 부모님과 함께 호주를 방문한 것이 박 대통령의 첫 해외여행이었다는 추억을 소개했다. 응예 티 조안 베트남 부주석과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외교사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사절도 차례로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2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고 우리 동포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신다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40개

박근혜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청사진이 나왔다.
박근혜정부는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이다.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특집

국민이 부르는 2013 희망의 노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이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야 한다. 어둠의 끝에 빛이 있듯,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 희망이 기다린다.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다.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할 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진다. 국민은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아 기르고, 땀 흘려 일한 가치를 존중받고, 늙어서 자식 눈치 안 보며 큰소리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일러스트 · 정형기

국민의 희망 현실이 되는 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성공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희망의 시대가 열린다

취임식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망편지나무에서 국민의 희망을 담은 복주머니를 열고 있다.

2월 25일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향한 곳은 광화문광장이다. 그곳에서는 국민의 희망을 담은 복주머니 365개가 달린 소망편지나무가 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광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소망편지나무에 매달린 복주머니 3개를 선택해 그 안에 쓰인 사연을 소개했다.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떠나기 직전 박 대통령은 약속했다.

"제가 미처 열어보지 못한 나머지 복주머니는 청와대로 가져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읽겠다고 약속한 복주머니는 소망편지나무에 달린 365개뿐만이 아니다. 취임식 날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이 직접 적은 희망쪽지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연은 수만 개에 달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박 대통령에게 숙제이자 힘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 모델에 변화를 주는 담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201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2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더뎠다. 성장에 치우진 나머지 과실을 골고루 나누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제 이 분야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한마디 말로 이를 요약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어느 나라 국민보다 열심히 살았다. 대한민국 곳곳을 둘러보면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도전해온 국민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클리 공감〉은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겠다는 아줌마 벤처기업가, 어려운 여건에서 직장을 구하는 대학생 등의 2013년 희망의 이야기를 모았다. 이들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하나 둘 현실이 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가를 소개한다. G

글·조용탁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장애인의 꿈을 찍어드립니다"

은퇴 뒤 장애인 전용 사진관 열어 새 삶 찾은 '바라봄사진관' 나종민 대표

바라봄사진관의 나종민 대표는 새해 들어 송파지역아동센터를 자주 찾는다. 그가 사진을 가르친 청소년 제자들과 함께 사진집을 만들기 위해서다. 나 대표는 아이들 실력이 괜찮은 편이라며 자랑이 대단하다.

"6개월 정도 가르쳤을 뿐인데 사진을 잘 찍는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해요. 내친김에 우리 같이 사진집 하나 만들자고 의기투합했지요. 우리의 희망을 담은 사진집을 올해 안에 꼭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진관을 시작한 것은 2011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라봄사진관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이곳이 바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전용 사진관이라는 것이다.

나 사장은 외국계 기업 CEO로 일하다 갑작스레 퇴직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나 사장의 눈에 장애인들이 들어왔다. 2011년 봄이었다. 사진에 재능이 있던 나 사장은 뇌병변장애아체육대회에 사진촬영 봉사를 나갔다. 그곳에서 한 장애 어린이의 어머니를 만났다.

"주위 시선이 너무 불편해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더군요. 장애인 가족이 마음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나종민 대표는 박소희·송희영·유예진 학생과 함께 사진집을 만들고 있다.

그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사진관을 시작한 배경이다. 누구나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소외된 이웃에게는 촬영비 30퍼센트를 할인해준다. 나 대표는 장애인 가족의 촬영을 위해 하루에 최소 3시간을 할애한다. 사진을 찍기 전에 고객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이들이 마음놓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은 배려다.

봉사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답 찾아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온 나 대표는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눔이라는 가치를 통해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다.

그는 자신과 같은 50대 은퇴자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은퇴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신이 이를 경험했기에 은퇴자들과 말이 통했다. 은퇴자들을 위한 사진 강습에 나섰고 행복한 은퇴에 대해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활동영역이 넓어진 나 대표의 눈에 띈 곳이 바로 송파지역아동센터였다. 이곳에 모이는 아이들의 환경은 그리 유복한 편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어른이었다. 나 대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진 강사로 일하게 된 이유다.

은퇴 이후 나 대표의 일상은 현역시절 못지 않게 바쁘게 돌아간다. 매주 두 번 바라봄사진관에서 장애인을 위해 사진을 찍는다. 틈틈이 퇴직자를 만나 은퇴 이후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여기에 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사진집 제작을 위해 출사에 나선다.

"바라봄사진관은 장애인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 모두 편하게 놀러 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사진에 관심이 많은 실버세대들이 제 사례를 보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G

글·조용탁 기자

"성별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기대"

아픈 아이 보고 공기청정기사업 나선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

"아줌마가 무슨 사업을…."

12년차 벤처기업인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가 사업 시작 이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이 대표는 2000년 공기청정기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지금은 연 매출 40억원을 올리는 기업의 CEO다.

이 대표가 제조하는 제품은 공기청정기. 반지하에 살던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아이디어를 얻었다. 환기가 필요한 작은 공간에서 자라는 친구의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도와줄 방법을 찾다 소형 공기청정기를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

사업은 쉽지 않았다. 제품을 개발해 품질을 검증받은 뒤에도 이를 직접 들고 다니며 팔아야 했다.

"아줌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억척스러움입니다. 하하하. 벤처기업인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미지 아닐까요?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여리고 나약해서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들고 학원가와 PC방을 찾아 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문전박대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스무 번 넘게 찾아가 주문을 받아낸 적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도 났고, 덕분에 판매도 점차 늘었다. 하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성에 차지 않았다.

기업 생태계 위해 여성기업인 늘어야

이 대표는 아예 해외시장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모든 자금과 기술을 집중해 개발한 제품을 들고 스위스로 향했다. 2008년 열린 '제네바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 대표의 공기청정기가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서야 한국에서도 제품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홈쇼핑과 통신판매를 통해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높여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성공에도 여성 기업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차가운 편이다. 지금도 이 대표는 사업 성공이 실력

이길순 대표는 에어비타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아니라 운이나 꼼수라는 뒷말을 듣는다.

"뭐 한번 호탕하게 웃어주고 잊어버립니다. 스팀 청소기를 만드는 한경희 사장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둘이 만나면 수다 떨다 시간을 다 보내고는 해요. 여성 벤처기업인이 워낙 적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줌마 벤처기업인이 많이 늘어나야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 대표는 국가발전과 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여성 기업인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과 눈높이가 다르고 더욱 섬세한 감성을 지닌 여성 CEO가 많을수록 사회에 필요한 제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일자리도 늘어나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하면서 여자이니 봐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음에도 여자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G

글·조용탁 기자

"아들과 함께 장애인 카페 열고 싶어요"

장애 아들과 고등학교 같이 다닌 어머니 유경옥씨 눈물의 졸업장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고교에 동반 입학했다 올해 함께 졸업장을 받은 40대 후반 어머니의 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월 14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홍천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유경옥씨 이야기다. 유씨는 졸업식장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과 함께했던 지난 3년간의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이다.

유경옥(49·홍천군 홍천읍)씨는 2010년 늦깎이 고교생으로 홍천농고에 입학했다. 지체장애(다운증후군)가 있는 아들 염수종(20)군의 학업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 유씨가 쉽지 않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사춘기 아들이 일반 아이들 틈에서 혹시 소외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애틋한 '모정' 때문이었다.

유씨는 먼저 아들과 동반 입학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용기를 내 홍천농고의 문을 두드렸다. 30여 년 전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더 이상 잇지 못한 유씨는 "입학하는 데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학교측의 답변을 듣고 곧바로 입학원서를 냈다. 비록 아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유씨는 일부러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 아들 염군은 농업경영과, 유씨는 식품가공과였다. 아들의 홀로서기를 생각해서였다. 유씨는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에만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유씨에게 아들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학교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다. 유씨는 3년 내내 결석 한 번 하지 않았다. 특히 아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장애학생들이 모여 있는 '도움반'의 도우미 역할을 자청했다. 그러고는 3년 동안 아들의 같은 반 장애학생 9명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면 가장 먼저 나서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또래 친구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체험학습 때는 장애학생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똑같이 도왔다. 또래 도우미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경옥씨가 졸업식장에서 아들 염수종군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다.

순탄치 않았던 학교생활, 아들 보며 극복

학교 축제 때는 수화공연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지역의 옥수수축제 때는 땡볕 아래서 학교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옥수수식혜를 개발해 시음행사를 열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유씨는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로부터 장애청소년 우수 도우미로 선정됐다.

유씨가 아들과 함께 학업을 시작한 데는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도 큰 몫을 차지했다. 남편 염선기(51)씨는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부인을 배려해 작은 승용차 한 대를 사줬다. 유씨의 모친 한인순(79)씨는 유씨가 학창시절 가정형편 때문에 고교 진학을 포기한 것이 미안해 쌈짓돈을 털어 교복 구입비로 내줬다. 졸업식장에서 유씨가 아들과 함께 입었던 교복은 바로 유씨 모친이 준 '향토장학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4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유씨의 학교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유씨는 "입학 당시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아들·딸 같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게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자 한 학기 정도가 지나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학과 공부도 쉽지 않았다. 특히 영어와 수학이 어려웠다. 유씨는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이 어린 선생님에게 먼저 다가가 물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유씨의 이 같은 학교생활의 원동력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성적도 3년 내내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가정주부로서 생활한 그간의 경험과 솜씨를 살려 고교 3년 동안 제빵기능사·한식기능사·양식기능사 자격증도 따냈다. 2011년 열린 '전국 FFK 전진대회'에서는 비생산가공분야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씨는 2월 14일 아들과 함께 홍천농고 제59회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학교가 주는 '함께걸음상'과 기능상·3년개근상·공로상·강원도교육감상·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상 등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했다. 그 중에서도 유씨에게 가장 각별한 의미가 있는 상은 '함께걸음상'이었다. 아들과 3년 동안 함께 재학한 어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학교측이 특별히 마련한 상이었다. 그 상장에는 홍천농고 교사들의 마음이 담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랑이 결실을 맺어 함께 졸업하는 영광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고교에 동반 입학한 유경옥(49·맨 왼쪽)씨가 아들 염수종(20)군과 함께 졸업장을 받았다.

"아들 친구이자 내 친구인 동급생들에게 감사"

졸업식장에서 유씨는 후배들의 송사에 답사자로 나서 눈시울을 붉히며 졸업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학교 정문을 나서면 모든 것이 그리울 것 같다. 아들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인 동급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수종이와 함께한 지난 3년간의 학교생활이 너무나 행복했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사는 것이 학교에 누가 되지 않는 일이고 학교와 주변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들 염군은 '함께걸음상'과 함께 장애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는 취지에서 학교측이 마련한 '희망누리상'을 받았다. 염군은 "엄마와 학교를 다녀 너무 좋고 행복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아들을 위해 고교에 입학했다가 함께 졸업하는 유씨의 꿈은 여전히 아들에게 맞춰져 있다. 아들과 함께 지적장애인을 돕는 카페를 여는 것이다. 카페를 열어 장애인들을 고용해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도 줄 계획이다. 학문에 대한 욕심도 포기하지 않았다. 유씨는 "기회가 된다면 아들과 함께 장애인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진민수 (강원도민일보 사회부 기자)

“폐 플라스틱에서 희망을 발견”

노동의 가치 일깨우고 자활 기회 나누는 ‘희망자원’ 정향자 대표

폐 플라스틱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희망자원’의 직원들이다. 폐 플라스틱을 재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희망자원은 저소득층 직원들에게 자활의 용기를 불어넣으며 사회적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이는 광주지역 실업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정향자 대표다.

희망자원은 폐지 수집 리어카로 시작해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광주 동구 자활훈련기관에서 관장을 맡았던 정향자 대표는 2001년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았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자원의 직원들이 폐 플라스틱 재가공 작업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 5명과 함께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폐지 수거를 그만뒀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정 대표는 플라스틱 재가공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폐지 수집과 비교해 플라스틱 재가공사업은 매우 어려웠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플라스틱 선별기·압축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했다. 트럭과 지게차 등을 다룰 전문 인력도 필요했다.

“지게차·집게차·대형트럭 등 갖출 장비도 많았지만, 이를 운용할 줄 아는 전문인력이 필요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찾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어렵더라도 결단을 내리고 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립에 초점 맞추고 직원 화합 도모 중시

정 대표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했고 트럭 지원 같은 여러 후원을 받았다. 이런 노력이 모여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사업 첫해에만 1,000톤의 플라스틱을 수거해 2,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2008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 해에 나주에 1,500평 규모의 공장을 마련했다. 이어 2011년에는 광주 서광주역 인근에 2공장까지 설립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은 26명으로 늘어났다. 정 대표는 직원들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화합을 도모하는 일을 중시했다. 정 대표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희망을 심어주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썼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인식 탓에 무기력해진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노력만큼 보람과 성과가 있다”고 말하며 격려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취감 맛보도록 도왔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정부의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을 받아 영화나 공연 관람 같은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정 대표는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정신을 공유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직원들에게 월급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자고 독려했다. 처음에는 직원들 간에 “나도 힘든데 기부까지 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직원이 사회환원에 동참하고 있다.

1세대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존폐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뚜렷하게 성공을 일군 희망자원. 정 대표는 공동체로 시작한 회사인 만큼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희망자원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나눔과 실천을 계속할 것입니다.” G

글·김슬기 기자

“절망 끝에서 삶의 의미 찾았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로 남매 잃은 부모의 10년 입양 스토리 김창윤·정경숙씨 부부

경북 포항에 사는 김창윤(60)·정경숙(59)씨 부부는 최근 아주 특별한 졸업식을 치렀다. 10년 전 고아원에서 입양해 가슴으로 키운 딸 연우(가명·14)의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다. 졸업장을 받아 쥔 연우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김씨 부부에게는 연우가 바로 희망꽃이다. 무남독녀 연우는 아직 자신이 입양된 줄 모른다. 아빠 엄마가 친구들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정도만 느낄 뿐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도 없다. 다만 한때 언니 오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니 오빠가 세상을 떠난 것은 연우가 입양되기 직전이다. 2003년 2월 18일, 그날은 향진(당시 22세·계명대 공예디자인) 언니의 졸업식 날이었다. 언니는 철환(당시 20세·중앙대 건축학과) 오빠와 함께 먼저 식장으로 떠났고, 뒤늦게 식장을 찾은 아빠 엄마는 전화가 불통인 오누이를 찾느라 행사가 끝날 때까지 졸업식장을 헤매고 다녔다고 한다.

딸의 졸업식 날 단란했던 가정을 생지옥의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은 대구지하철참사였다. 김씨의 두 자녀도 이때 지하철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청천벽력이었다. 졸지에 남매를 모두 잃은 김씨 부부는 이후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살았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었다.

15명으로 출발한 봉사단 230명으로 늘어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한숨만 내쉬던 김씨 부부는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입양에 눈을 뜨면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연우를 만난 것이었다. “대구와 경북 김천, 충북 음성 등 전국의 고아원을 누비다 결국 울산에서 연우를 만났다”는 김씨 부부는 사고 8개월 뒤인 2003년 11월 정식으로 연우를 자식으로 맞았다.

이후 김씨 부부는 늦둥이를 키우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다. 2년 후 여자아이를 한 명 더 입양하려던 김씨 부부는 연우의 시샘을 견디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두 손을 들었다. 연우의 시샘을 “연우 하나라도 잘 키우라는 하늘의 계시”라고 믿은 김씨 부부는 온 힘을 쏟아 연우를 키웠다.

김씨가 봉사활동의 참 맛을 알게 된 것도 연우를 만난 후였다. 연우를 입양한 다음해인 2004년 봄 김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현대제철 포항공장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매달 고아원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불우이웃을 찾는 이 봉사단은 15명으로 출발해 지금은 230명의 대식구가 됐다.

김창윤씨가 포항의 한 복지시설에서 점심으로 짜장밥을 만들어 상에 올리고 있다.

7년째 자원봉사단장을 맡으면서 두 명의 소녀가장을 따로 돕는 김씨는 2009년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감사패를, 2011년 말에는 삼일문화재단의 사회봉사대상을 받는 등 봉사를 제2의 천직으로 삼고 있다.

“아들 딸 몫까지 잘 키우는 일만 남았다”는 김씨 부부는 입양과 봉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쓰고 있다. G

글과 사진·전준호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취업·결혼 한 번에 잡을래요"

간호사에서 독서지도사로 재취업 준비하는 김진희씨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진희(41·전북 전주)씨의 목소리는 희망에 차 있었다. 김씨는 그간 힘들게 보낸 세월을 뒤로 하고 2013년부터는 새 인생을 살고자 한다. 그는 올해 아동교육분야 독서지도사에 도전할 예정이다. 창의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재능과, 대학 시절 따놓은 사서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씨의 원래 직업은 간호사다. 그의 어머니는 딸에게 늘 "너는 봉사심이 많으니 간호사를 하라"고 독려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김씨는 2006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전북 전주의 예수간호대학에 입학했다.

김씨는 2009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국가고시인 간호사 면허시험에 합격했다. 전주 예수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 해 규모가 작은 다른 병원에 들어갔지만 주사를 잘 못 놨다고 해고당했다. 이후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일했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남자 환자들은 여자 환자는 물론 간호사에게도 성추행을 일삼았다.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긴 김씨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애로사항을 잘 전달해 환경을 개선하자"고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며 병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결국 그는 2012년 4월 노인요양병원을 그만두었다.

김씨는 딸 다섯인 집안의 맏이다. 김씨가 어렵사리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 덕분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지난해 8월 갑자기 뇌경색으로 몸져누웠다. 예수병원에서 치료받다 지금은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다. 김씨는 요즘 어머니 병간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이가 찼음에도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없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고민이 많아요. 주위 사람들은 대단하다, 심청이다 하고 치켜세우지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겠죠. 병원에서 보면 저보다 힘들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재활을 도우면서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며 자격증 따 실력 갖춰

그는 올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한다. 간호대에 입학하기 전 그는 백제예술대학 출판편집학과에 입학해 편집디자인과 북디자인, 컴퓨터 출판 등을 배웠다. 1993년 광주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펜화 일러스트로 특선을 수상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국회도서관 비정규 계약직으로 사서 일을 하면서 도서 DB 구축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성균관대 사서교육원 39기로 졸업하면서 준사서 자격증도 땄다. 이후 전주대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해 2005년 졸업했다. 같은 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는 사서 자격증인 정사서 2급을 땄다.

"경력은 짧지만 공부했던 것을 활용해 독서지도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방과후 아동지도사와 애니어그램(심리상담유형검사) 초급과정을 수료했지요."

김씨는 지난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아동권리교육기관에 합격했다. 직원교육까지 받았지만 어머니 병 간호 때문에 일할 수 없었다. 이제는 어머니 병세도 많이 호전되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장을 알아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꾸준히 교육받고 있다.

"나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취직하면 나이도 있으니 결혼도 생각 중이에요. 연이 닿는다면 목사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른답니다. 이 시대 재취업 희망여성들 모두 파이팅!" G

글·김지연 기자

김진희(맨 오른쪽)씨는 아동교육분야 독서지도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봄에는 희망씨앗 뿌리겠습니다"

7년간의 노숙생활 끝내고 영농재활 통해 새 삶 도전하는 이봉춘씨

"재기하면 떳떳하게 가족을 만날 겁니다. 당장은 짐밖에 안 될 테니까요."

이봉춘(61)씨는 이번 설에도 헤어진 가족을 찾지 않고 홀로 명절을 보냈다. 집 없이 떠돌며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설움이 기억난 듯 북받친 목소리였다. 말을 잇던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그럼에도 '떳떳하게'라는 대목에서는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었다. 이제 곧 7년간의 노숙생활을 정리하려는 참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조만간 짐을 꾸려 경북 예천에 있는 자신의 밭을 돌보러 갈 계획이다.

노숙생활을 하던 이봉춘씨는 올봄부터 경북 예천에서 농부로 재기를 꿈꾼다.

1970년대 말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5년간 지게차 기사로 일한 그는 당시 어린 나이에 제법 돈도 벌었다. 결혼 전에 벌써 부산에 번듯한 집도 한 채 샀다. 지게차 기사 일을 그만둘 즈음 결혼했다.

이후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박봉임에도 시 기능직 공무원의 길을 택했다. 주차단속 등 주로 외근직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월급은 조금씩 올랐지만 생활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1983년 첫 딸을 낳고 3년 후에는 둘째를 보면서 보람을 갖고 살았다. 단란했던 가정은 1997년 갑작스레 둘째딸이 병에 걸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백혈병이라더군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건강한 혈소판을 구하느라 8년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씨의 둘째딸은 오랜 투병생활 끝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 달 앞두고 2005년 1월 세상을 등졌다.

"치료비를 대느라 사채까지 끌어 쓰는 바람에 남은 건 2억여원에 달하는 빚더미뿐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됐고, 월급은 절반을 미리 떼였다. 딸아이의 죽음 직전에는 집이라도 살려볼 셈으로 아내와 합의이혼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남은 부채를 갚지 못해 결국 딸의 장례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했다. 사실상 도피생활이었다. 서울에서 처음 찾은 일은 공사판 일용직이었다. 영등포·용산 등지를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다. 품삯 몇 푼을 손에 쥐면 심적 고통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시고는 했다. 그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채 몇 년이 흐르자 성한 이는 모두 빠지고 당뇨 등 성인병까지 얻었다.

노숙생활을 시작한 2006년 이후 돈을 보태주던 세 동생도 몇 년 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 아이들(동생들)도 힘들겠죠. 그런데 자꾸 도와 달라고 하니…. 아내와 딸에게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재기한 뒤 (모두에게) 연락할 겁니다."

7개월 영농교육 받고 창고·경작지 임대받아

벌써 떠돌이생활 7년째다. 그렇게 역사(驛舍)·판자촌·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이씨에게 지난해 2월 한줄기 빛이 찾아들었다. 영등포의 한 자활시설을 통해 알게 된 서울시 영농 프로그램이었다. 7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씨는 경북 예천시로부터 몸을 누일 공간과 외양간·창고용지로 150평, 경작지 100평을 임대받았다.

"초기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을 씨앗·농기구 등을 사는 데 쓰고 나니 남은 돈이 없어 걱정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이를 놓칠 수는 없죠."

공무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뒤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씨는 이제 다시 농부로 재기하겠다며 의지를 다진다. 그는 "모든 것은 봄이 돼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거칠어진 손가락을 모아 쥐었다.

"다시 한번 개척해야죠. 내 삶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풍찬노숙'에 다 빠지고 몇 개 남지 않은 앞니를 드러내며 이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G

글·김의진(뉴스1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행복 안겨줄 우리의 '꿈'을 소개합니다

사회 곳곳 삶의 어려움 이겨내려는 서민들의 간절한 소원

현실은 드라마 속의 세상과 다르다. 삶은 고단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하다.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마다 사연과 처한 현실은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한국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키우는 서민들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한다.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마을에 놀러 오세요"

박용권 비토마을 이장

안녕하세요? 비토마을 이장 박용권입니다. 우리 마을은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곤양IC에서 내려 서포면 방면으로 약 10킬로미터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입니다. 이곳은 원래 섬마을이었습니다. 1992년 비토연륙교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바뀌었지요. 더 이상 섬은 아니지만 섬만의 아름다움은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요. 월등도·별학도·진도 등의 유인도와 토끼섬·거북섬을 비롯한 무인도가 형제처럼 어우러진 곳입니다. 마을주민은 300명 정도 됩니다.

비토마을은 아름다운 청정해역입니다. 굴·바지락 등의 어패류를 비롯해 각종 해산물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또 안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은 평야가 펼쳐져 있지요.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밭농사를 일구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은 '별주부전'의 전설이 스민 고장입니다. '비토'라는 이름도 '날 비(飛)'자에 '토끼 토(兎)'자를 씁니다. 하늘을 나는 토끼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요. 여기에 토끼섬과 거북섬도 있습니다. 이들 이름만 보더라도 '별주부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도 우리 마을을 '별주부전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희망은 우리 마을이 '별주부전'의 고장으로 주위에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 관광객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경관은 아름답지만 찾아오신 분들을 모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남해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소나 주민생활쉼터, 관광객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우리 마을 말고도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들이 하나 둘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장만의 이야기를 잘 살리면 사람들도 더 기분 좋게 다녀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비토마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별주부전'의 고향에 오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시대를 이겨내는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4학년

요즘 대학생들은 88만원 세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등의 달갑지 않은 수식어를 달고 살아갑니다. 언제라고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했겠습니까만 등록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실과 부닥칠 때마다 대학생 처지가 유난히 딱하다고 느끼고는 합니다. 저 역시 치열한 대학입시 때문에 밤잠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눈을 돌려 사회를 보면 학생의 문제 외에도 정치문화나 경제구조의 개선, 올바른 복지 구현 등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숙제들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현실은 넘어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오히려 더욱 기운을 내서 이를 스스로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미안해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현실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서 젊음 특유의 명랑함과 씩씩함을 갖춘 대학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성세대의 위로와 사과는 받아들이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은 스스로 꿀 수 있기를, 그 꿈의 원동력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 대학생은 이 사회 지성의 한 축을 담당해온 만큼 주변의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2013년에는 사회적으로 더욱 양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엿한 사회의 한 축으로 명백히 인정받는 대학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해는 취업준비생의 꿈도 이루어진다!"

이치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취업준비생의 '명절증후군'을 아시나요?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이 20대 중·후반 젊은이에게는 가시방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너 요즘 뭐하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부담은 두 배가 된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집에 내려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취업준비나 하고 있을 것을" 하고 후회도 되지요.

눈을 조금 낮춰 중소기업에 가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 말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생활하며 대접도 못 받고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디든 취직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 더 나은 직장을 계속 찾을지….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점, 토익 점수, 인턴 경험, 해외봉사단 활동 등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도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해외유학을 다녀오거나 휴학하고 연수나 여행을 다녀오기는 어려운 일이랍니다.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을 보며 대학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재주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더군요. 단순히 스펙만으로 개인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인생이 집안 환경이나 수능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어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진

숨은 재능을 스펙을 통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배경이 아닌 실력과 자질을 우선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런 제도가 널리 확산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앞선 재력으로 쌓은 스펙이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성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복지제도와 적절한 연봉, 그리고 근무환경만 보장된다면 부모님의 반대에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젊은이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알짜배기 회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정부도 출범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넓히고 싶어요"

김민지 진명여고 2학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세운 결심이 어느덧 가물거립니다.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뿐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마음 속으로 한 해 목표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 데다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사에 덜렁거리다 보니 곧잘 다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는 보건실 단골손님이지요. 엄마는 "무슨 계집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입니다.

가끔 아플 때마다 "조금만 조심할 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밥을 급하게 먹다 체한 적이 있었는데, 속이 더부룩한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안 다치고 안 아플 텐데, 올해는 조신한 소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기심을 더 키워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것저것 궁금한 점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생겼나 보다, 저건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갑니다.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성격도 아니고 얌전한 편도 아닌데 이상하게 매사에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키우면 학생으로서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늘 것 같습니다. 학교공부를 하면서도 왜 이럴까 생각하는 일이 늘어나면 결국 성적도 오르겠지요. 또 공부뿐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여러 가지 대상에 호기심이 생기면 삶에 대한 가치관도 정립되고 꿈도 더 구체적이고 멋있어지겠죠. 판에 박힌 일상도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호기심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하는 시상의 전환점을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소원은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서고자 노력하는 능동적 자세로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제게도 굉장히 알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당당히 자립하는 세상 됐으면"

진창도 시각장애1급 장애인

저는 나이가 60대 후반의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서른이 지나며 눈에 문제가 생겨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망막에 있는 세포에 문제가 생겨 망막 기능이 소실되는 질환입니다.

처음 병명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

안마사는 직업 특성상 출장을 자주 나가야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돼 활동도우미와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인생이 집안 환경이나 수능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어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진 숨은 재능을 스펙을 통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배경이 아닌 실력과 자질을 우선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런 제도가 널리 확산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앞선 재력으로 쌓은 스펙이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성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대학생 이치석 씨 –

그런데 만 70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서비스는 활동지원시간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몇 년 있으면 70세가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활동지원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출퇴근 시간만도 빠듯합니다.

그러니 제발 장애인에 한해 노인요양서비스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동등한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올해의 희망입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이런 장애인이 열심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엄마나라 말도 배우게 했으면 좋겠어요"

등터융 다누리콜센터 베트남어 상담원

베트남에서 온 32세 등터융입니다. 베트남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드라마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와서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착하고 똘똘한 아이도 생겼습니다. 아들 이름은 박범근입니다.

올해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3월이면 범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답니다. 저희 부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입학은 큰 경사이지만 제가 베트남 사람인 것이 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정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인 저는 아직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문화도 잘 모른답니다. 행여나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에 밤을 지새운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이지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워킹맘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에서 베트남어 상담원으로 근무합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빨리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한국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중언어교육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아빠나라뿐 아니라 엄마나라 언어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도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면 한국사회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스스로 이겨내야 할 일도 있겠지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근이에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근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며 재미 있게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 이번에 베트남에 함께 다녀오면서 범근이도 봤지? 우리는 모두 비슷한 문화와 환경에 살고 있단다. 혹여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범근이가 그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씩씩한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니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좀 더 의젓한 범근이가 되어줬으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단다. 우리 범근이, 아자!" G

국민 모두 행복한 사회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장애인·노인·사업실패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

다문화가족·장애인·노인·사업실패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판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이 정부기관을 찾아오게 하는 대신 기관이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나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가난에 빠질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사회안전판은 이처럼 가계나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제도나 행정 서비스 등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안전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일종의 복지보험 성격이다. 박근혜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판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정부는 사회안전판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의 범주를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빈곤위험계층까지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비수급 가구 중에서도 실제로는 빈곤한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의 현행 차상위계층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잠재적 빈곤위험계층까지 살펴 빈곤층화 방지

박근혜정부는 OECD 상대적 빈곤 기준에 상응하도록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기준을 '중위소득 50퍼센트'로 확대 개편한다. 잠재적 빈곤위험계층까지 살펴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도 OECD 기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빈곤 퇴치에서만큼은 서둘러 국제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소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근혜정부의 사회안전판은 손님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먼저 손님을 찾아 나선다. 개인이 여러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 다니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다문화가정·노인 등 소외계층이라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유해 수혜자 유형별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 가정에 배달할 연탄을 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게 '빵을 주기보다 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형편이 차상위계층 비수급자보다 나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보다 소득이 적은 역전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탈수급자가 되면 급여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감소하고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정착 초기 결혼이민자 위한 서비스도 확대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한다.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등을 확대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급여체계를 구축한다. 또 복지가 고용·교육·사회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통합적으로 연계해 사회안전판을 튼튼하게 만들 계획이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과 청년층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의 가장 큰 고민은 주택이다. 집은 최소한의 사회안전판이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주택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로 '도시의 섬'이라고 불린다. 이런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난방용 유류(가스비)의 부가세를 면제해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단지에 사회복지사·공익근무요원 등을 배치해 사회취약계층이 국가 복지 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부의 사회안전판 역할도 더욱 확대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250개가 설치돼 있다. 설치목표 대비 89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입국 후 5년이 지난 결혼이민자 중 한국생활에 잘 적응한 사람을 선발해 이민 1년 미만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 관계를 연결해주는 멘토링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인은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회생·퇴출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빨리 회생하게 만들고, 회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늘렸다. 또 국세 납부 마일리지 제도 도입한다.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실적과 연계해 국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광범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적용한다. 장애등급제에 따라 장애인에게 등급심사 비용 등의 부담이 있다. 또 장애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장애인도 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G

글·박상주 기자

박근혜정부 주요 사회안전판

-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대상 확대
- 은퇴자 창업전문과정 개설
- 청년창업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미쓰에이와 함께 '날아올라' 볼까~!

4인조 걸그룹 미쓰에이가 어려운 경제여건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한 응원가를 준비했다. 노래 제목은 '날아올라'. 주영훈씨가 작사·작곡한 노래는 '내일의 꿈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자'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쓰에이의 뮤직비디오는 스마트폰으로 기사 상단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는 건강한 가족의 든든한 토대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야 자녀들이 희망 먹고 건강하게 자라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에게 아픔을 치유하며 희망을 주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를 기원한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조했던 정책이 있다. 박근혜정부도 대선 공약부터 인수위원회 활동, 그리고 출범 이후에도 '복지'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남다르다고 느낀다. 그런 만큼 박근혜정부가 준비한 복지정책이 약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평생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현장에서 일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무료 장례사업인 '추모의 전화'에서 일을 시작했다. 1990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결식아동의 급식과 함께 이들을 돌보는 공부방을 운영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인 아동들의 건강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지금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한다. 현장경험이 일자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공부방에서 일할 당시의 일이다. 한 아이가 새로 들어왔다.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였는데 가정이 어려워 공부방에서 하루 끼니를 해결했다. 하루는 다른 아이와 오목을 두다 크게 싸움이 났다. 나는 다친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일장 훈시를 했다. 나중에 들으니 아이 아버지가 실직상태였다.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집에만 있다 보니 매일 부부싸움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자활공동체 건설, 이윤 작지만 많은 일자리

가장이 일해야 가정이 안정된다.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한 가치를 지닌 숭고한 행위다.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토대이자 건강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자녀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실직은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치명적 사건이자 더 크게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암적 존재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하며 서민들의 일자리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건설노동자와 공단 봉제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기계화·고급화와 기업의 해외 진출로 줄어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윤 창조를 위한 기업활동은 이해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싶다.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요즘 산업의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단순직 노동자들과 함께 자활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 자활공동체 건설은 이윤은 작지만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는 곧 가정과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연결된다.

다행히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겼다.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을 많이 한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삶에 보람을 느낀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안정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효율적 일자리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인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어본다. G

글 · 이성수 (인천광역자활센터장)

중점기획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가 국정 1순위로 꼽은 국정목표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경제구조를 말한다. 창의적 지식을 산업과 접목해 널리 활용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경제운영의 핵심이다.

일러스트 · 김희룡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문화·과학기술 융합 신성장동력 창출

박근혜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다. 이러한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의 하나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비롯한 10개의 국정과제가 뒷받침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가수 싸이는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도 카메라를 들게 만들었다. 잉락 총리는 2월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단상에 앉아 있다 싸이가 등장하자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스타로 '수직상승'한 싸이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의 최근 집계 결과 지난해 음원수입 26억원, 유튜브 수입 9억원, 광고 수입 50억원으로 모두 85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뽀통령' 뽀로로의 수입은 '싸이 형님'을 훌쩍 뛰어넘는다. 뽀로로 제작자인 김일호 오콘 대표는 1월 23일 한 방송 뉴스에서 뽀로로의 연간 로열티는 150억원, 캐릭터 상품 판매액은 6,000억~8,0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한때 애니메이션의 단순 하도급 시장이었던 우리나라는 창의성과 기획력을 갖춘 우수 애니메이션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마켓인 '밉 주니어 2012 키즈저리'에서는 우리 업체 디피에스(DPS)가 제작한 〈두리둥실 뭉게공항〉이 대상을 받았다. 2010년 〈로보카 폴리〉, 2011년 〈캐니멀〉에 이은 3년 연속 우리나라 업체의 대상 수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1월 1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왕십리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뽀로로 슈퍼 썰매 대모험〉 개봉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뽀로로를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시대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열정과 아이디어, 창의력이 풍부한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고도화, 산·학·연 연계 등 10개 국정과제 추진

애니메이션과 같이 과학기술에 기반해 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인문·예술과 융합한 신성장동력은 2월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의 추진계획에 기술돼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 비전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국정과제 중 첫 번째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융합신성장동력 등 신사업을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령화와 에너지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다.

추진전략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1월 16일 서울 CGV왕십리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뽀로로 슈퍼 썰매 대모험〉 개봉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청년의 열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어지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한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 국정과제는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장 정체에 직면한 우리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유망한 융합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이다.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는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사업 창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국정과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이다.

또 하나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자본시장제도 선진화'는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조건부 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했다.

주목받지 못한 분야의 따뜻한 일자리도 포함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는 높은 고용창출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유통산업·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외국인투자 유턴 활성화, 산업 연구개발(R&D) 사업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들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동반성장 확산과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2·3차 협력사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확대와 함께 성과공유제 시행 대상을 2012년 77개 기업에서 2013년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의 추진계획에서는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 구축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 표현에서 개인권리 침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은 강화하도록 했다.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국정과제에는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K-Move' 방안과 해외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K-Move 포털' 구축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지역의 단체·대학·기업이 연계하는 '우리 지역 키우는 창직사업' 신설계획,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계획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지원할 '고용친화적 정부 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국정과제는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 정기 개최와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 수립·추진계획을 포함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지막 국정과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 과제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장기정책 비전' 수립 계획을 담았다. 또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인프라를 지원하며, 청년·고령자의 사회적기업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모든 산업 고른 발전으로 일자리 확대

일자리 확대는 현재 한국경제의 기본 과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 역시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일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주축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을수록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수위권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육성책이 주춤하면서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는 정보통신산업분야 육성정책을 통해 한국을 이 분야 최강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1기가비피에스(Gbps, 초당 1기가바이트)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한다. 각종 통신사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던 무선 인터넷 존(Wi-Fi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ICT 분야 중소 벤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기술 거래 유통망을 직접 확보할 계획이다. ICT기술은 방송과 융합돼 신규 미디어 시장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이는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게임·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영화·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도 추진한다.

중앙포토

지난해 말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3회 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KES)에서 한 중소기업이 출품한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신개념 셋톱박스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 최고 수준 ICT 전문가 키울 절호의 기회

4차원 영상설비를 만드는 ICT 벤처기업 포리얼의 조용귀(40) 대표는 "정부의 ICT 육성 방안이 한국의 수많은 벤처기업을 살리는 데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벤처의 전통적 주축은 ICT였는데 지난 몇 년간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기술전문가를 꿈꾸며 ICT를 배운 젊은 인재들이 많았다. 하지만 마땅한 벤처기업을 찾지 못해 대기업에 들어가 고급기술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번 국정과제 시행이 많은 ICT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우는 방안도 나왔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이 집중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낙후해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농식품산업을 생산단계 이후 유통·가공·외식·관광에 이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하면 농촌지역 일자리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식품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키울 구체적 계획도 나왔다. 종자·식품·기자재 등 고부가가치분야에 집중투자한다는 것이다.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육종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종자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싼 로열티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업에 대한 기대도 높다. 마리나 시설을 확충하는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로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플랜트, 수자원 등 해양 연구개발사업을 지속해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술적으로 뒤처진 수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외연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다.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를 만들고 원양에서 양식을 진행하는 외해양식, 도심형 빌딩양식, 갯벌양식 등을 도입한다.

보건산업 관련 국정과제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 최근 국내 제약시장은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상위 제약사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쟁력 있는 신약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추진전략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국정과제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동력화
13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친화산업 육성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 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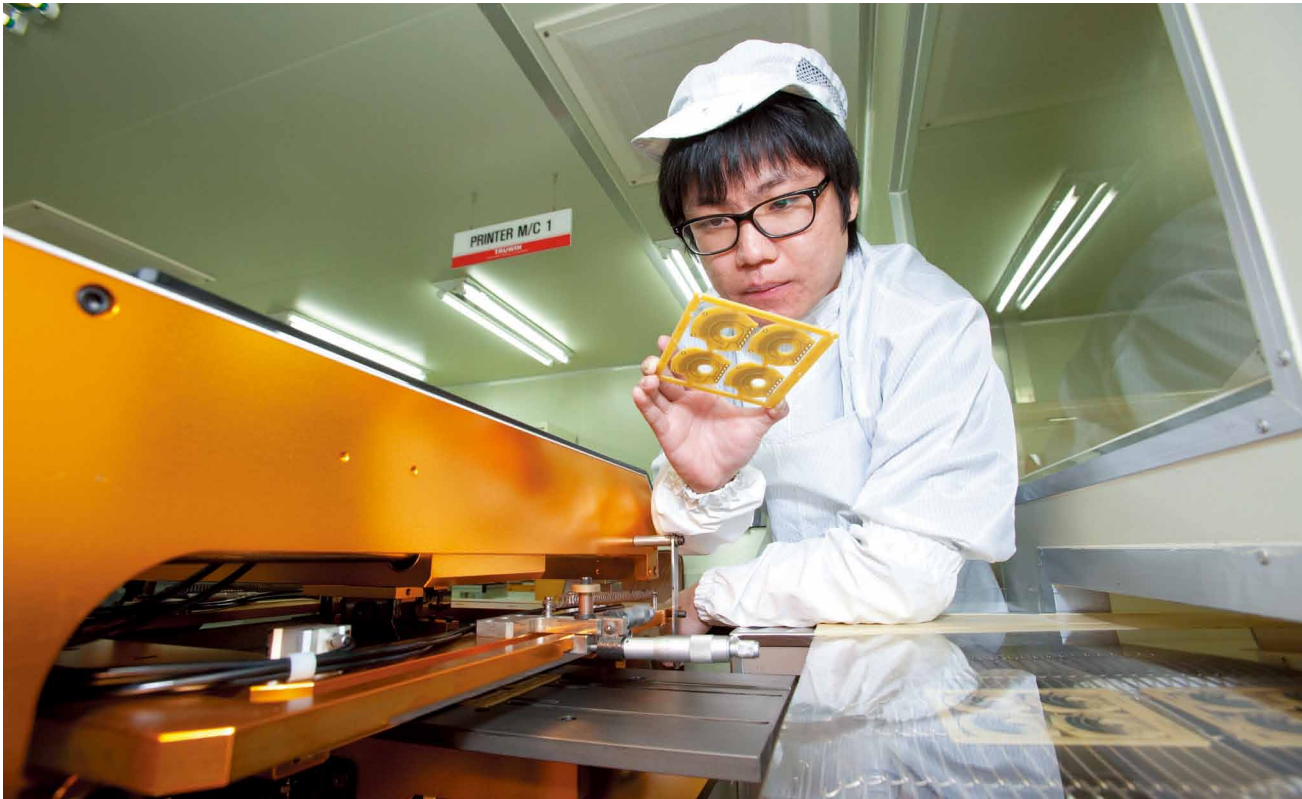
그러나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임상실험을 거쳐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높은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상실험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내 제약사가 그동안 진행한 연구를 포기하거나 라이선스를 따는 데 실패하고 소중한 연구개발 결과를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한 펀드 조성해 지원

동아제약 연구본부 김순회 본부장은 "정부가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를 조성해 국내 제약사에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신약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본부장은 "신약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는 그만큼 우수한 연구인력 증원과 직결된다"면서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 큰 규모로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판매나 생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 증진, 웰빙 등 친고령산업과 항노화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관련 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비를 조성하기 위한 펀드도 만든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산업을 만들면서도 연구개발 기술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제성장의 결실을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확대로 전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뜻깊은 목적이다. G

글·박상주 기자

중소기업청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이 떠오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생산된 제품 검사에 열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돕기에서 키우기로 중기정책 대전환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과거 한국경제를 대기업이 이끌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게 만들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중소기업을 키워 중견기업을 만들고, 중견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실질적 주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영하던 모바일 게임업체를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스마일패밀리 김동신(33)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보고 기대에 차 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을 위한 방향과 입장이 마음에 든다.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합병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실제 사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반겼다.

기업 매각과 재창업을 겪어본 김 대표는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실현할 구체적 투자 활성화 방안이 더 나오기를 바랐다. 김 대표는 "재창업할 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적극적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2~3개뿐이어서 힘들다"면서 "창업자뿐 아니라 투자자도 늘어 투자자 간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사업 기획을 가진 창업자가 투자자를 고를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엔젤 등 투자사를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은 여전히 담보를 기준으로 한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구조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창업 초기 기업은 돈이 없어 뛰어난 인력을 구할 수 없는데 정부가 초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걱정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관련 국정과제는 중소기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생산성은 대기업의 60퍼센트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소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산하 출연 연구소 예산 중 일정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무조건 할당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주도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을 든든하게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 준비-실행-현지진출에 이르는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업들이 신흥시장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도록 국가 브랜드 제고 활동을 확대 추진한다. 국가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주재해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느낄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직접 빼줄 예정이다.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작은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대규모 계약은 분할·분리 발주를 법제화해 작은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재형저축,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뛰어난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도록 유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젊은 기업가를 기르는 데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대학을 창업기지로 만들어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을 키우는 요람으로 만든다는 야심 찬 구상도 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젊은층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기업과 정부가 출자해 만드는 청년창업펀드, 보육·투자·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투자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진전략③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국정과제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20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벤처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권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정부가 가진 정보를 종합해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재료 구매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업종전환이나 전직교육을 강화하고, 폐업 때도 압류 걱정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공제기금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한 운송업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강화한다. 택시·버스·화물차·연안여객선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키운다. 택시는 총량제를 도입해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한편 확실한 감차보상을 한다. 택시 연료를 액화천연가스(CNG) 등으로 다변화하는 데 국가가 지원해 택시회사의 연료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버스는 정기이용권 등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업은 통행료 할인을 검토하고 검사수수료를 절감해주는 한편 복지사업과 운전기사 휴게시설을 확대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영세한 연안여객선은 도서교통 육성 법률을 제정해 힘을 보탠다. 국가 고속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여객선 운송사업 선진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데서 한 발 더 나간다.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국이 살아남는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글·박상주 기자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과학이 곧 경제, 융합 바탕 일자리 창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는 사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나라. 과학기술 강국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과학기술 개발은 경제부국으로 가는 토대다.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열쇠는 창조경제, 그 중심에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산업이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T에 있다면서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중앙기기·FAB지원센터동 소자 클린룸에서 한 연구원이 반도체의 증착·식각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나 경제가 정책의 핵심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경제를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과학기술과 IT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언급한 것도 한국경제가 새로운 날개를 달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창조경제의 토대는 창의력과 지식, 연구개발(R&D) 등이 핵심이다. 이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경제의 덩치를 키우는 전통적 발전 모델과 다르다. 아이디어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생산성을 키우고 동시에 산업 간 융합적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그 방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핵심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꼽았다.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재 육성이다. 창의적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문화적 공간과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 안에서 융합형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펼치고, 전국 과학관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하는 등 기반 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초연구예산 2017년까지 전체의 40%까지 확대

과학기술 특성화대에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과학고·영재고 지원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과학영재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0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응용과학에 집중된 국내 과학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자체 연구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해 사업화도 돕기로 했다.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과 기술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기초과학과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선 지원체계부터 개선한다. 그동안 연구단계별 지원은 부처별로 분산 추진했다. 이 때문에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초과학부터 연구 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지원할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키우고 인근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소통과 융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정규직 비중을 확대한다. 또 과학기술인연금 혜택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높이고, 65세 정년 환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 연구개발특구 등에 유치한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 여건도 살필 방침이다.

추진전략④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국정과제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창의력과 지식이 하나의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시장생태계 구축도 서두르기로 했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표준, 특허 간 삼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하나의 독자 산업으로 반영한다.

시장성이 큰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경제가치를 고려해 투자대상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 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분쟁 단계별로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달 궤도선·착륙선 자력 발사에 도전

우주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술자립 속도를 높여 현 정부에서 우주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겠다는 의미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인공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2021년으로 계획했던 1.5톤급 실용위성 지구저궤도(600~800킬로미터) 발사를 2019년으로 앞당긴다.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해 2020년까지 달 궤도선과 착륙선 자력 발사에 도전할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시스템 예비설계 단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우주산업의 내적 성장을 도모한다. 동시에 위성전문기업을 육성해 세계 위성체·위성영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박 대통령의 약속에 과학기술인은 물론 재계의 기대가 크다. G

글·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 보호하고 대기업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다섯 번째 추진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합치될 때 진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다. 박근혜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이유다.

2009년 5월 6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Pathway to the disciplined capitalis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의 역할, 책임을 새롭게 확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꼽혔다. 이현재 전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 시장에서 주체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경제철학"이라며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합치될 때 진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전략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국정과제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29 소비자 권익 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31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 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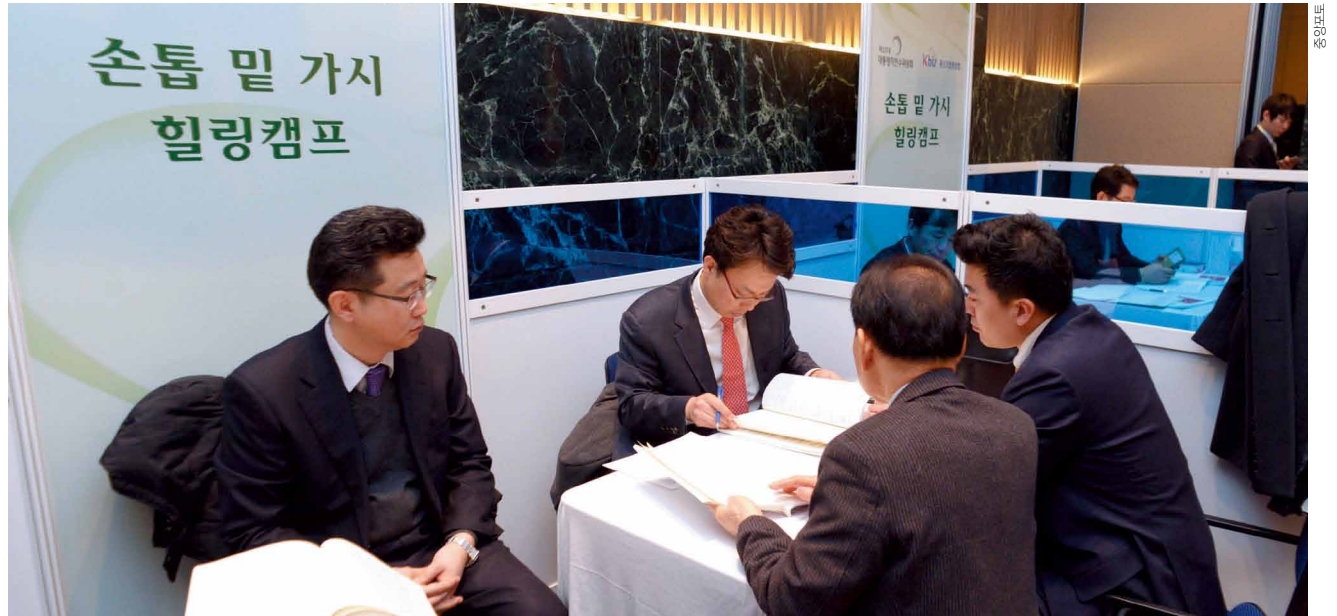
이 전략의 핵심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 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과제를 정했다.

중소 사업자 부당한 대우 받지 않게 보호

박근혜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가 부당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유통업계 거래 관행 정비,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들 개선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징수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정비하고,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빵집)을 비롯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일단락된 '골목상권' 역시 화두에 올랐다. 박근혜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퍼센트까지 분담하게 한다는 제도도 눈에 띈다.

박근혜정부는 시장에서 또 다른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필품·금융·교육 같은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법 집행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외 신청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취해 소송의 효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 사업자가 부당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서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으로 확대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넓히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 제도와 달리 실제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 불법행위 제재 대책도 시행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영위 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 사익추구를 억제할 방침이다.

법 집행 역시 한층 강화한다. 대기업이 연루된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행위 같은 기업비리 사건의 처벌도 강화한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사이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출자 역시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기업집단의 지배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행사하기로 한 것 역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되 금융계열사를 별도로 묶어 관리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한다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근혜정부는 이외에도 금융부문 규제와 감독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신협 등이 취급하는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우체국으로 예금이 쏠리는 데 대한 해결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G

글·최은경 (포브스코리아 기자)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세출 구조조정으로 5년간 100조 절감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에는 8가지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부동산·물가·식량수급·세입기반·건전재정기조 등 5대 분야는 안정화를 지향하고, 글로벌 위험요인과 금융시장 불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공부문 부채와 국유재산은 각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도모한다.

중앙포토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책으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개선이 꼽혔다.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수다. 그 대응책의 핵심 기조는 '선제적 차단'이다. ▶자본 유출입변동성 완화 ▶외채·외화유동성 관리 ▶외환건전성 제고 ▶국가신용등급 관리 등이 핵심 과제다.

대외충격 대응대책 중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의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 역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한도 산정 기준일을 현행 월평균에서 매 영업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채의 만기와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주목받는다. 외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domestic)—동아시아(regional)—글로벌(global)' 등 3단계에 걸친 금융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신설 등 최근 지역 금융안전망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저축은행 대주주 편법적 우회대출행위 차단

그밖에 회사채시장을 원활히 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취약업종 및 비우량 등급 회사채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회사채 발행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상호금융·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경영 유도를 통한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수신 급증 등 '긴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각 중앙회는 전체 조합에 대해 상시감사를 벌이는 한편 금감원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조합을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해 편법적 우회대출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우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대책이 범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 위주로 전환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반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현상에 대한 대책도 곧 마련한다.

석유·통신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도 눈에 띈다. 유류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와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시장 정착 등을 모색하고 있다.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26개 정도의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7만 명 수준이다. 5만원 가까이 나오던 이동통신료를 2만원대로 줄일 수 있는 '착한 서비스'다. 정부는 통신요금의 경쟁 촉진, 단말기 가격인하 정책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도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자급률 제고, 식량위기 사전 대응 시스템 확립, 자주율 개념 도입으로 안정적 해외 공급기반 구축이 목표다. 식량자주율이란 국내와 해외투자 농장의 연간 곡물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30퍼센트를 밑도는 자주율을 2020년까지 65퍼센트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우량 농지 확보와 농지 활용률 제고를 모색중이다.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밀·보리·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970년대 150퍼센트에 달하던 토지이용률은 현재 109퍼센트에 불과하다. 토지이용률을 1970년대 수준으로 올리면 곡물자급률을 10퍼센트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밀·콩·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은 각기 자주율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곡물 수급 불안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 공공비축 대상도 쌀에서 밀·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약 이행 소요 재원을 차질 없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의 확충이 필수다. 이를 위해 우선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까다롭게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추진전략⑥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국정과제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금융소득과세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지난해 4,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내린 데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낭비성 예산 제거하고 세출 비효율성 고친다

건전재정기조의 정착도 성장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낭비성 예산을 제거하고 세출의 비효율성을 고쳐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우선 재정·공공사업 투자관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성과 평가, 민간투자 적격 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다.

체계적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월 26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부채의 적절한 관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도 성장의 밑거름이다. 공기업 부채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 지침'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국유재산 관리도 새로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존이 부적합한 국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하고, 적합한 국유지는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효용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G

글·한기홍(월간중앙 기자)

"지구촌 격차 줄이려면 국익보다 공공선"

아리랑TV–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개최… 29개국 언론사 CEO 50여 명 등 300여 명 참석

제1회 아리랑TV–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미디어 포럼이 2월 2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국제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29개국 미디어 대표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글로벌 미디어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NHK월드·BBC월드·파키스탄TV·알자지라·러시아투데이·보이스오브아메리카 등 국제 언론사 대표들이 서울에서 모였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글로벌 미디어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2월 2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글로벌 미디어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미디어 포럼'이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Bridging the Divide)'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세계 29개국 언론사 CEO 50여 명과 정부·언론·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손지애 아리랑TV 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은 축사, 기조연설, CEO 라운드테이블, 패널 토론, 특별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부문은 김우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CEO 라운드테이블이다. CEO 라운드테이블에는 테신 에이 칸(Tehsin A.Khan) 파키스탄TV 대표, 브루스 셔먼(Bruce Sherman) 미국방송위원회(BBG) 이사, 알렉세이 니콜로프(Alexey Nikolov) 러시아투데이 대표, 손지애 아리랑TV 사장, 데츠시 와키타(Tetsushi Wakita) NHK월드 대표가 패널로 참가했다.

이들은 '글로벌 미디어 – 국익이 우선인가, 전 지구적 공공선이 우선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미디어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브루스 셔먼 BBG 이사는 "언론인들은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행동 뒤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선을 추구함에 있어 간극이 있다. 미국의 언론매체는 미국 저널리즘을 반영한다.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비중이 동일하지 않다. 양측을 대변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조금은 치우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갈등 보도할 때는 프로 정신 필요"

또 "글로벌 미디어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성 있는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확한 뉴스를 내보낼수록 시청자들의 충성도는 증가한다. 미국에서도 반미감정이 높은 국가에 대해 투명하게 뉴스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가 개방된 사회가 되면 우리의 역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츠시 와키타 NHK월드 대표는 "국가 간의 갈등은 도처에 있다. 빈곤·인권·환경·영토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미디어는 국가 간 갈등에 대해 저널리스트로서 프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국가를 위해 취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는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데츠시 대표는 "언론매체는 시청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글로벌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각 국가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글로벌 미디어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것이다. 한 매체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미디어를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신 에이 칸 파키스탄TV 대표는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이 정보기술의 발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인터넷 미디어 등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책임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앞으로 저널리즘과 원칙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미디어라면 책임 있는 의견 내놔야"

손지애 아리랑TV 사장은 "글로벌 미디어는 공공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돈을 추구하거나 시장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성 등 저널리즘의 원칙도 따라야 한다. 글로벌 미디어가 추구하는 방향은 상업적 기업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덧붙여 "글로벌 방송사는 특정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하지 않는다. 전 세계인이 시청자다. 하지만 글로벌 방송사들은 협력할 기회가 적었다. 이제부터라도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빈곤 탈출 등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방송국보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렉세이 니콜로프 러시아투데이 대표는 "책임감 있는 뉴스인지 아닌지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많다. 글로벌 미디어라면 무엇보다 책임 있는 의견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미디어와 그렇지 않은 미디어 간 구분이 없어져 문제"라고 밝혔다. 니콜로프 대표는 이어 "각 언론매체는 축구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는 선수들처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 인해 중립적 자세가 없고 자신만의 입장만 있다. 특정 면만 강조하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언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미디어는 경쟁하지만 축구경기와 달리 반칙 없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이것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글·박기태 기자

데츠시 와키타 NHK월드 대표

"좋고 나쁜 미디어 시청자가 판단"

브루스 셔먼 미국방송위원회 이사

"정부지원 받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

손지애 아리랑TV 사장

"돈 추구하지 않는 만큼 공공선 위해 노력해야"

알렉세이 니콜로프 러시아투데이 대표

"반칙 없는 페어플레이 해야"

테신 에이 칸 파키스탄TV 대표

"책임감과 저널리즘 원칙 지켜야"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악에 끌리죠”

여성의 세계 다룬 그의 작품 여정… 〈스토커〉는 정점에 선 영화

박찬욱 감독은 지난 수년간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았다. 그는 우아하고 세련된 영상, 치밀한 구성,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으로 꼽힌다. 때를 기다리던 박 감독이 선택한 영화는 〈스토커〉였다.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과 함께 제작한 영화 〈스토커〉의 화면 밖 이야기를 박 감독에게 직접 들었다.

중앙포토

박찬욱은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스토커〉를 통해 특유의 영화적 미학을 표현했다.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 〈스토커〉는 2월 28일 국내 개봉 전부터 숱한 화제를 뿌렸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을 맡고,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석호필 역을 맡았던 웬트워스 밀러가 시나리오를 썼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미아 와시코브스카·매튜 구드·니콜 키드먼 등 할리우드 명배우들의 참여로 이목을 끌었다. 말하자면 〈스토커〉는 박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그 총합은 박 감독만의 영화적 미학으로 완성됐다.

〈스토커〉는 낯익은 스토리텔링을 유려한 미장센으로 승화시킨 빼어난 수작이다. 〈스토커〉에는 박 감독이 천착해 왔던 ‘복수’의 텍스트, (전작에 비해 수위와 강도는 다소 얌전해졌지만) 잔혹한 비주얼, 선과 악의 모순을 담은 철학 등이 유유히 흐른다. 굳이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박 감독의 전작에 비해 더 우아하고 세련된 영상이다.

날 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박 감독의 ‘복수 3부작’이 거칠고 투박했다면, 〈스토커〉는 절제된 화면 안에서 밀도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며 소녀를 관조한다. 마치 정교하게 세공한 보석을 감상하는 느낌이다. 박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10대 후반 소녀의 요동치는 심리와 불균질한 행동을 저릿하게 묘사한다.

〈올드보이〉 이후 세계 영화계에 존재감을 각인시킨 박찬욱 감독은 할리우드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잡았다. 결국 그를 매료시킨 이야기는 ‘소녀의 성장통’이었다.

“인디아(미아 와시코브스카)의 소녀적 감수성, 사춘기적 반항심을 통해 성장 과정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그렸어요. 사춘기 때는 어른들의 세계를 속물스럽다고 생각하면서 혐오하고 경멸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낭만적이고 우아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박 감독이 〈스토커〉의 시나리오에 끌린 점은 바로 ‘여성(소녀)의 이야기’가 매혹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박 감독에게 여성은 미지의 존재이자 탐구의 세계인 셈이다.

중앙포토

영화 〈스토커〉에는 미아 와시코브스카·매튜 구드·니콜 키드먼 등 할리우드 명배우들이 참여했다.

박 감독이 〈스토커〉 연출을 결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외동딸과 연관이 있다. 박 감독의 외동딸은 극 중 인디아와 동갑이다. 극 중에서 찰리(매튜 구드)가 사온 와인은 ‘1994년 산’인데, 이 대목은 딸과 인디아의 나이가 같다는 점을 상징한다.

“젊은 시절에는 남성적 세계를 지향했습니다. 마초라기보다 남성의 특징에 더 끌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성적인 면이 생기고 또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여성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성성은 때로는 잔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죠. 어쨌든 여성성에 매혹된 것은 사실이에요.”

〈친절한 금자씨〉 이후 여성의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의 작품세계에서 〈스토커〉는 그 정점에 선 영화라고 할 수 있다. 10대 소녀는 성장통을 겪는다. 그 과정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반항심이 생기고 나쁜 행동에 매혹된다.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 〈스토커〉는 ‘소녀의 성장통’이라는 텍스트를 박 감독 식으로 해석한 이야기인 셈이다. 말하자면 소녀의 성장통에 대한 잔혹한 비유다. 그 대표적 장면이 인디아가 살인을 저지른 찰리의 ‘악마적 모습’을 목격한 후 샤워를 하며 자위하는 모습이다.

“성적 자각하면서 어른과 여자 되는 순간 체험”

“성인이 되는 순간이죠. 성적 자각을 하면서 어른이 되는 순간을 체험하는 것 아닐까요? 그 순간은 여자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위행위가) 폭력행위에서 느끼는 희열과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죄악 자체에 대해 느끼는 사춘기 시절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 영화가 ‘살인이 어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웃음) 이 영화 전체를 커다란 비유로 봤을 때 악에 끌리는 마음, 그런 과정을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겪는다는 것이죠.”

할리우드에 박 감독은 신선한 피다. 한 해 수백 편의 영화를 기획 제작하는 할리우드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한다. 늘 새로운 수혈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박 감독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가주의로 할리우드를 매혹시키고 있다. SF 고전인 〈블레이드 러너〉 〈프로메테우스〉 등 세기의 걸작을 만든 리들리 스콧 감독이 러브콜을 보낸 것도 그 때문이다.

“할리우드 시스템은 개인 역량 끌어내는 신세계”

또 〈올드보이〉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리메이크로 다듬는 중이다. 박 감독이 제작을 맡고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는 〈설국열차〉 역시 할리우드 배급망을 타고 전 세계에서 개봉될 전망이다.

“할리우드에서의 작업을 통해 감독의 논리가 정교해지고, 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원해’라고 한 번 말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논쟁을 벌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자기의 논리가 빈약해지면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길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길 때도 있고 또는 제3의 누군가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그 과정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논쟁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을 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스토커〉의 미학적 완성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박 감독은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뽑아내는 신세계를 경험했다.

“사실 감독으로서는 유럽이나 아시아 현장이 훨씬 편해요. 미국의 현장은 스튜디오와 많은 대화를 하는데,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감독이 누군가와 성의를 다해 대화하고, 설득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 감독은 치밀하게 설계한 영화작업을 겪으며 ‘협의와 이해’라는 가치를 통해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또 다른 장을 써가고 있다. G

글·지용진(무비위크 기자)

“간편한 도로명주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디션 스타 인기 안고 홍보대사 나서… “내년 전면시행 앞두고 캠페인 보람”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던 소녀는 가수가 됐다. 한 TV 방송의 오디션 무대에서 고음으로 열창하던 소녀는 지난해 여성 듀오 ‘15&(피프틴앤드)’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다. 소녀가수 박지민이다. 최근에는 선배가수들의 명곡을 재해석해 2주 간격으로 유튜브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 그런 그가 내년부터 전면시행하는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로 나섰다. 박지민을 만나 그간의 도전과 홍보대사로 나선 내력 등에 대해 들었다.

JYP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지민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열여섯 살. 박지민은 풋풋하고 싱그러웠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정말 신난다는 그에게서는 10대 소녀 특유의 발랄함이 묻어 나왔다. SBS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스타’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에게는 늘 ‘폭풍고음’ ‘6단고음’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열다섯 되던 지난해 10월 데뷔해 아직 신인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지난해 12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15&사운드(Sound)’라는 이름으로 JYP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의 대표곡을 재해석해 공개하고 있다.

음악활동만으로도 바쁠 그가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로 나섰다. 도로명주소는 그동안 써오던 지번주소를 대신해 2011년 7월 29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다. 2월 18일 고등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박지민을 만났다.

2012년 싱글앨범 ‘아이 드림(I Dream)’으로 데뷔하고 나서 오랜만에 유튜브로 돌아왔는데, 인터넷으로 팬을 만나는 소감은?

“새 앨범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팬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15&사운드(Sound)’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선배 가수들의 인기곡을 ‘피프틴앤드’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부르는 프로젝트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유튜브에 공개하는데 선배들의 노래에 우리만의 색깔을 입히는 게 재미있어요. 최근 네 번째 곡으로 공개한 량현량하의 ‘학교를 안 갔어’는 래퍼 산이(SanE) 오빠와 함께 작업했는데 편곡이 신선해 즐거웠습니다.”

함께 듀엣 활동을 하는 백예린과는 호흡이 잘 맞나요?

“둘의 성격이 정반대여서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동갑내기여서 좋고요. 같은 대전 출신이어서인지 공통점이 많아요. 제 성격이 적극적인 편이라면 예린이는 차분하거든요. 음악 스타일도 다르고요. 저는 고음을 잘 내는 반면 예린이는 허스키한 데다 소울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호흡이 참 잘 맞아요. 예린이가 연습생생활을 오래 해서 제 부족한 점을 잘 짚어줍니다. 누가 제게 ‘노래 잘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순간 끝날 겁니다. 연습도 잘 안 하고요. 너무 비슷하면 사실 재미 없잖아요? 서로 다른 점을 같이 맞춰 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팬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힘들 때 의지하는 좋은 듀엣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수 박지민이 서울 홍익대 앞 놀이터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가수 박지민이 2012년 7월 도로명주소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요? ‘K-팝스타’ 우승부터 가수 데뷔까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오디션 우승부터 실제 가수로 활동하기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면 한 음악방송의 야외무대에 선 일이에요. 실내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야외방송은 처음이었거든요. 유난히 추운 날이었는데 바람도 불어서 노래를 부르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몸으로 고생해서 그런지 가장 기억에 남네요.”

현재 ‘K-팝스타 2’가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지난해 우승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시즌 1에서 주목받았던 곡이 아델(Adele)의 ‘롤링 인 더 딥(Rolling In The Deep)’이에요. 시즌 2에서 이 곡을 부른 참가자가 있었는데 워낙 잘 불러 시즌 1 참가자로서 많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어떡하지’ ‘왜 하필 나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방송국에서 그 노래를 밀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노래를 통해 시청자들은 저를 다시 한 번 떠올려 주실 수도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올해 참가자들은 훨씬 실력도 좋은 데다 끼 있는 사람도 많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어렸을 때 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소명 표기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귀국한 뒤에는 대전에서 머물러 서울의 경우 주소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복잡한 주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도로명주소로 바꾼다고 해서 새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됐죠.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촬영하고 홍익대 앞 놀이터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벌여 보람이 있었어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더 많은 분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인가수로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폭풍고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뜻밖의 부담감이 있어요. 고음이 들어가지 않은 노래를 부르면 “왜 고음 노래를 안 부르느냐”고 물어보는 팬이 종종 있거든요. 중음·저음이 매력적인 노래도 제 목소리로 들려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아악’ 하고 내지르는 노래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2013년, 어떤 꿈을 꾸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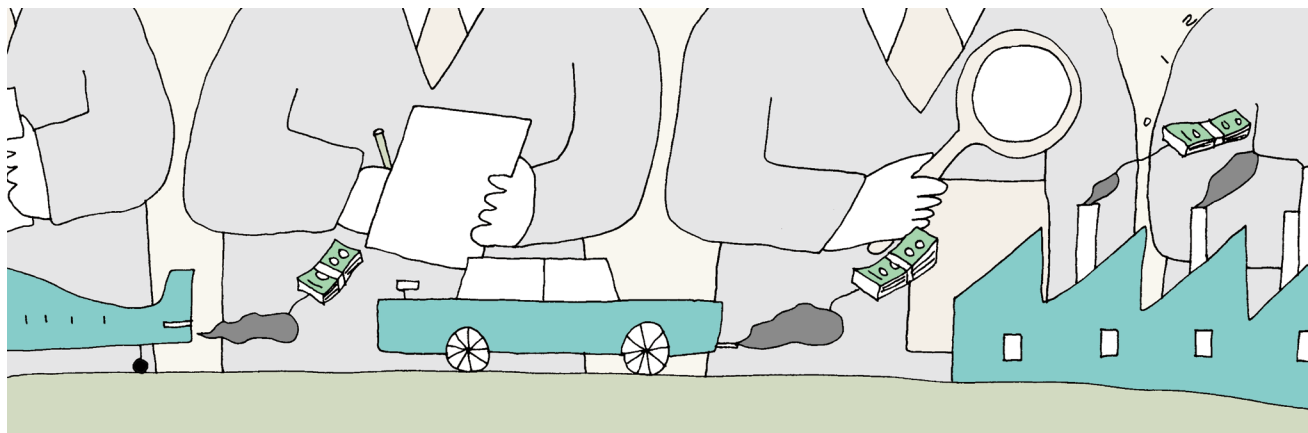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해요. 일단 중학교를 졸업해 정말 신납니다. 듀엣으로 활동하는 예린이와 같은 학교로 진학해 더 좋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가수활동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올해 소원이 있다면 태국에 꼭 한 번 가고 싶어요. 태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이번에 졸업하는데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무대에 서서 더 다양한 팬들을 만나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친한 ‘남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웃음) G

글·김슬기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탄소중개인’ 민간 자격증 주의하세요

환경부, 로드맵 그리는 중… 공인 인증제도 나올 때까지 자제 당부

일러스트·강일구

“해외 직업정보 사이트에서 ‘탄소 중개인’을 검색하면 연봉이 1억원 이상으로 나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인력 대부분도 금융사·대기업·회계법인·컨설팅사에서 근무합니다.”

98만~150만원을 내고 강의를 들으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다는 한 민간연구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이다. 최근 1~2년 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중개인) 양성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수강료는 월 100만원 수준. 다소 높은 편이지만 각광받는 전문 자격증이라는 말에 이미 900여 명이 이수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자제를 부탁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박은혜 사무관은 “국가 공인이 아닌 단순 민간 등록 자격증에 불과하다. 자격증 활용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탄소거래 중개인력 양성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자격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탄소거래시장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시장원리를 적용해 시장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탄소배출권거래제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커지면 중개인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이 유엔 미래포럼이나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전망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뉴질랜드·스위스가 전국단위로, 미국·일본은 일부지역에 도입했다. 중국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환경부에서는 2월 22일 배출권 거래 전담부서인 ‘배출권거래준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온실가스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배출권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반대로 배출권을 구입해 정해진 양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도 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쪽이 적게 배출하는 쪽에서 배출 권리를 사는 구조다. 배출 허용량을 지키지 못하면 초과한 온실가스 1톤당 전년도 시장가격의 3배에 이르는 부과금을 내야 한다.

배출권거래준비기획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2014년까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체계를 확립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량 통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에는 할당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간의 탄소 중개 거래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G

글·이채현 객원기자

“2월 27일은 국민권익의 날”

국민권익위, 조선 태종이 신문고 설치 교서 내린 날로 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의 날’을 제정했다. 국민권익위는 2월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의 날 제정 기념식과 함께 제5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월 27일은 조선왕조 3대 임금인 태종이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신문고 설치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출범일인 2월 29일을 기념하고 박근혜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알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국민권익의 날을 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출범했다. 과거 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탄생했다.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국민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후 지난 5년간 처리한 행정심판 건수는 13만여 건이고, 그 중 구제 건수는 2만1,000여 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체 권익 구제건수(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포함)는 통합 전인 2007년 4만9,096건에서 2012년 6만756건으로 늘어났다. 기관 통합 후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민원 만족도는 2008년 66점에서 2012년 85.6점으로 뛰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지영 사무관은 “여러 기관으로 흩어졌던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구제율이 높아지고 처리 기간도 짧아졌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에는 국민신문고 설치 등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작용했다. 국민신문고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민원 제안 창구이자 정책토론 관련 범 정부 차원의 인터넷 단일창구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간 125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110콜 상담과 청와대 서신민원 등 연간 345만 건의 민원을 수리·분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고충 해결을 지원한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인식 아래 전국 178개 지역에 이동신문고를 설치하고, 139개 지역에서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고충민원 처리 건수는 2007년 2만3,373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과 제5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년 3만3,242건으로 늘었다.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돼 2007년 평균 32일에서 2012년 평균 14일로 줄었다.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는 민원업무 향상에 기여하고 부패방지에 힘쓴 국민을 포상하는 국민신문고대상도 시상했다. 제5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포상했다. 수상자로는 13개 단체와 개인 101명이 선정됐다. 일반 제보자부터 공무원·경찰·기자 등 다양한 인물이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수상자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며 “권익위원회도 정책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권익 수호에 앞장서면서 부패방지 역할을 강화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

글·김슬기 기자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새봄 문턱 새만금을 만나볼까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과 함께면 역사·설화부터 방조제에 얽힌 이야기까지 풍부한 관광 가능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을 이야기로 풀어놓은 책이 있다. 바로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발행한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이다. 책은 설화를 비롯해 이름 탄생의 비밀, 볼거리 등 새만금의 모든 정보를 담았다. 이 책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만금을 만나게 된다.

봄을 알리는 3월이다. 코끝을 스치는 봄 향기에 마음이 설렌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봄 옷을 꺼내 입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상쾌한 봄바람을 쐬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 마음이 확 트일 것 같다.

이런 날에는 '새로운 만금(萬金)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새만금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성싶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발행한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이라는 책을 길라잡이 삼으면 누구라도 쉽게 새만금을 즐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을 소개하는 이 책은 선조들의 숨결이 깃들인 설화를 비롯해 방조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 등을 오롯이 담았다. 우리나라 주요 간척지, 새만금이라는 이름의 탄생 비밀, 새만금사업의 의의 등도 자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보고 느끼며 쉴 수 있는 곳도 사진과 함께 보여주는 등 새만금의 모든 정보를 담았다.

고군산군도 전경.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구성된다.

이 책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제일 먼저 새만금의 시작인 제1호 방조제와 만난다. 1호 방조제는 가장 먼저 개통된 방조제이자 맨 마지막으로 길을 연 곳이다. 이유는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를 가장 나중에 한 곳이기 때문이다. 방조제 왼편을 바라보면 전북 부안의 누에섬과 서해바다를 볼 수 있다. 오른편으로 눈을 돌리면 고깃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관광용지 전경이 펼쳐진다.

풍경에 취해 달리다 보면 어느덧 가력도에 이른다. 가력도는 제1호 방조제의 종점이자 제2호 방조제의 시작점으로 "가력도가 없어지면 비안도가 망한다"는 전설이 서린 곳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방조제 건설을 위한 가력도 발파를 반대했다. 덕분에 가력도는 일출과 석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생태로로 탈바꿈했다.

비응도는 창공에 송골매 나는 모양에서 유래

제2방조제 끝머리에는 아리울공연장과 33센터, 신시도가 자리잡고 있다. 새만금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곳이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신시도의 월령봉과 199봉 정상에 올라서면 북쪽으로는 제3·4방조제를, 서쪽으로는 고군산군도를, 남쪽으로는 제1·2 방조제와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동쪽으로는 심포항과 계화도의 전경을 볼 수 있다.

신시도에서 제3·4호 방조제를 따라가다 보면 비응도를 만난다. 비응도는 송골매가 푸른 서해바다의 창공을 나는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매처럼 나는 위그선이 취항할 예정인 국내 최초의 관광어항이기도 하다.

비응도에서 우회전하면 내초도까지 이어지는 직선도로가 펼쳐진다. 내초도는 금돼지 설화가 얽힌 곳이자 33.9킬로미터 새만금 방조제의 종점이다. 시점표지석은 제1호방조제에 위치한 새만금홍보관 부근에 있고, 종점표지석은 이곳에 있다. 하지만 책과 함께하는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만금 주변에도 볼거리는 풍성하다고 책은 소개한다. 책과 함께 계속 여행하다 보면 일제 수탈의 역사를 품은 군산항에서 당시 지어진 여러 채의 근대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김제에서는 벽골제와 아리랑문학관을 통해 새로운 농경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부안에서는 조선팔경 가운데 하나인 변산반도의 화려함을 접할 수 있다. 낙조와 출렁이는 파도가 매력적인 솔섬도 이곳에 있다.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의 표지. 책은 새만금의 모든 정보를 담았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문화홍보과 성기만 팀장은 "새만금은 사람들의 땀과 애정, 노력이 담긴 생명체다. 조상들의 숨결이 깃들인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해 엮은 책이 바로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이라며 "새만금 전시관과 관광안내소에 책을 비치해 두었다. 새만금에 오시면 이 책을 들고 여유롭고 행복한 새만금 관광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

글·박기태 기자 사진·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이 추천하는 새만금 가는 가장 빠른 길

서울–새만금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서천공주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동군산IC·군산IC·서김제IC·부안IC)→새만금

▶서해안고속도로(서서울TG)→동군산IC(군산IC·서김제IC·부안IC)→새만금

광주–새만금

▶호남고속도로(광주IC)→전주IC→전주군산자동차전용도로→새만금

부산–새만금

▶남해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고창담양고속도로(줄포IC→부안IC→서김제IC→군산IC)→새만금

대구–새만금

▶88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익산장수고속도로(익산IC)→전주군산자동차전용도로→새만금

통영 욕지도

바다의 땅 '불국토'로 떠나는 여행

관광객들은 묻는다. 욕지(欲知)의 뜻이 무엇이냐고. 욕지도의 뜻을 '알고자 하면' 산에 올라 다른 섬들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욕지도에서 가장 높은 천왕산에 오르면 연화열도의 섬들이 연화세계를 이루며 황홀한 경치를 선사한다. 그제야 누군가 이상향을 꿈꾸며 이름붙인 욕지라는 뜻을 알 수 있다. 바다만큼 숲이 아름다운 욕지도로 간다.

욕지도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바다 위로 섬들이 점점이 떠 있다.

"혼자 오셨는가예?"

"예."

"혼자 오면 외로울 낀데…."

욕지도 제암마을 언덕배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마늘밭을 매고 있다. 할머니는 욕지도에서 태어나 욕지도 남자와 결혼해 살았다. 섬이지만 내내 농사만 지었다. 딸만 다섯을 둔 딸부자다. 아이를 갖고도 밭일을 쉬지 못했다. 평생 밭만 파고 살았다. 섬살이가 하도 고달파 젊어서는 섬을 떠나고 싶은 적도 많았단다.

"후회가 왜 없겠어요? 남들처럼 객지에 나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받아 편히 살았으면 좋았겠지. 평생 섬에서 갇혀 살았어요. 아이가 늙도록 섬을 못 떠났네요. 농사짓고 애 키우고 살다 보니 인생 잠깐이네요."

할머니의 말이 서글프다. 그렇게 잠깐 사이 한 생이 갔다.

욕지(欲知)…, 연화세계 알고 싶으면 부처님께 물어보라

통영은 섬나라다. 사람들은 통영을 '바다의 땅'이라고 부른다. 통영바다에는 526개의 섬이 있고, 그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4개다. 통영의 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 연화열도를 이룬다. 연화열도의 중심 섬인 욕지도는 최고의 비경을 자랑한다. 통영항에서 32킬로미터, 한 시간 거리의 뱃길이다.

청보석의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섬과 여. 욕지도 앞 바다의 풍경은 한편의 산수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답다. 욕지도는 주변에 크고 작은 섬을 올망졸망 거느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탁 트인 남태평양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다도해의 소담함과 대해의 장쾌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섬이다.

욕지도를 본섬으로 하는 욕지면에는 10개의 유인도와 45개의 무인도가 속해 있다. 45개 마을에 2,000여 명이 산다.

관광안내서에는 욕지(欲知)의 뜻을 '알고자 하는'으로 풀이해 놓았다. 무엇을 알고자 한다는 말인가? 그냥 글자 뜻풀이일 뿐 욕지도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전해주지는 못한다. 욕지도의 뜻은 그 자체로는 결코 풀이할 수 없다. 욕지도 한 섬만으로는 풀이가 되지 않는다. 욕지도라는 이름의 뜻은 주변의 연화도·두미도·세존도 등 다른 섬들과 연계할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린다. 욕지도를 비롯한 이들 섬의 이름은 '욕지연화장두미문어세존(欲知蓮華藏頭尾問世尊)'이라는 불경 구절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연화세계(극락세계)를 알고자 하는가? 그 처음과 끝을 부처님께 물어보라."

옛날 욕지도를 비롯한 연화열도의 섬들은 스스로 이미 연화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름은 불국토, 이상향을 염원하는 누군가의 기획 하에 지어진 것처럼 아귀가 맞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이름의 섬들이 통영바다에만 몰려 있을까? 근처 미륵도와 반야도 또한 이 불국토의 자장 안에서 지어진 이름이리라.

산에 올라야 섬의 진면목이 보인다

욕지도와 그 옆의 작은 섬 상노대도에는 신석기시대 유물인 조개무지(패총)가 있다. 조개무지에서는 각종 석기와 화로·기왓장·금불상 등과 함께 인골 2구도 발견된 바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이미 욕지도 일대의 섬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다. 삼한시대나 가야시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도 사람살이가 이어졌을 터다. 가야시대에는 6가야 중 수로의 막내동생인 말로가 지배하던 소가야 소속이었다.

하지만 왜구의 등살에 공도정책을 실시한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의 거주가 허가되지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주로 군선들의 정박지로 이용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왕실 궁례부의 명례궁 소속이었다. 욕지도 수군이 사슴을 잡아 녹용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욕지'라는 지명이 태종 때부터 등장한다. 그만큼 오래된 이름이다. 공식적으로 욕지도에 사람들의 입주를 허락한 것은 조선시대 말에 와서다. 1887년(고종 24년) 조정에서 욕지도 거주 허락이 떨어졌고, 1888년 20여 명이 처음 입도했다. 1988년에는 욕지 개척 100년 기념비를 세웠다. 개척 당시에는 사슴이 많아 녹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개척자들의 구전에 따르면 입도 당시 욕지도에는 전함이 계류하던 곳인 전선소, 관청인 치소, 손님의 숙소로 쓰던 관소가 있었다. 산정에는 위급을 알리는 봉화대도 있었다. 아직껏 남아 있는 조선포나 관청마을, 옥섬 등의 지명이 여기서 유래한 듯 보인다.

욕지도는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했다. 특히 멸치의 주산지였다. 솔가지에 불을 켜 멸치를 유인한 뒤 잡는 '챗배' 멸치잡이가 욕지도의 전통어법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등어·전갱이 등으로

1 관광객들이 욕지도에서 가장 높은 천왕산 정상을 향해 걷고 있다. 2 해녀가 따온 돌멍게와 손바닥만큼이나 큰 석화. 3 바위에 붙은 돌김을 뜯어다 발장에 떠 햇볕에 말리는 풍경은 좀처럼 보기 드문 귀한 풍물이다.

풍어를 이루었고, 남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 구실했다. 당시 욕지도에서 잡은 물고기는 서울·마산·일본·만주 등지로 수출했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경에는 조선인 2만864명, 일본인 2,127명 등 인구가 2만3,000명에 이를 정도로 섬이 번창했다.

지금 욕지도는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이 중심이다. 욕지 내항은 돔·우럭 등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가득하다. 또 욕지도는 처음으로 고등어 양식에 성공했다. 서울 등 뭍에서 먹는 고등어회는 거의 욕지도 산이라고 보면 된다.

욕지도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많지만, 진면목은 해변에 있지 않다. 욕지도를 찾는다면 주봉인 천왕산에 올라야 진짜 욕지도를 봤다고 할 것이다. 가장 높다고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데는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욕지도 명물 고구마막걸리와 밀감

욕지도에는 천왕봉(392미터)을 비롯해 대기봉(355미터)·약과봉(315미터)·일출봉(190미터) 등 여러 산이 있다. 산에는 등산로가 잘 나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산에 오르지 못할 형편이라면 혼곡마을 등산로 입구에서 노적·통단마을까지 이어진 해변 트레킹 길을 꼭 걸어볼 것을 권한다. 탁 트인 바다와 오솔길을 번갈아 걸을 수 있는 이 길은 여행자의 넋을 빼놓을 정도로 황홀하다.

천왕봉은 옛날부터 섬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산이다. 섬사람들은 산기슭의 제당에 천왕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동항마을 위 상수원 저수지 기슭에는 아직도 산신당이 있다. 천왕봉은 최근까지도 천황봉이라고 불렸다. 일제강점기 천황봉으로 바뀌어 불리다 제 이름을 되찾았다. 한국의 산 이름은 대부분 불교에서 유래했다. 천왕봉의 천왕은 사천왕의 그 천왕이다.

섬 전체가 산악지형인 욕지도에는 아름다운 숲이 많다. 그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숲은 자부포의 메밀잣밤나무 군락지(천연기념물 343호)다. 우리나라 난대림에서 자라는 잣밤나무는 대부분 구실잣밤나무이고, 메밀잣밤나무는 희귀하다. 욕지도에는 그 귀한 메밀잣밤나무가 무리를 이뤄 신령스럽기까지 하다.

욕지도에는 논이 거의 없고 비탈밭이 많다. 밭은 끈적한 찰황토가 아니라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에 가깝다. 그래서 고구마 농사가 잘 된다. 욕지 고구마는 해남 화산 고구마만큼이나 달고 맛있다. 고구마를 넓적하게 잘라 말린 '빼데기'로 끓인 빼데기죽도 유명하다.

욕지 총각한테 발목 잡힌 제주 해녀

욕지도에서는 고구마를 '고메'라고 하는데 욕지도 고메막걸리는 고구마케이크 속의 고구마 속살보다 더 달콤하다. 운이 좋으면 욕지도의 할머니가 집에서 직접 담근 고메막걸리를 맛볼 수도 있다. 욕지항 선창가 붕어빵 수레에서 막걸리를 병에 담아 판다. 진짜 섬의 전통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또 다른 욕지도의 명물은 밀감이다. 사람들은 제주도에서만 밀감이 나는 줄 알지만, 남해안의 거의 모든 섬에서도 밀감나무가 자란다. 욕지도의 밀감 재배는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가 토질을 조사한 후 시험재배하면서 시작됐다. 노지에서 나는 욕지도 밀감은 달고 새콤한 맛이 야생의 맛 그대로다.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해마다 찾는다.

욕지도에는 과거 제주에서 물질을 왔다 욕지도 총각에게 발목이 잡혀 몇십 년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는 해녀가 여럿이다. 그래서 욕지도 뱃머리에서는 해녀가 직접 물질한 전복·해삼·소라·합자(조선홍합)들을 맛볼 수 있다. 해녀의 남편인 어부가 낚아온 싱싱한 횟감들은 덤이다. 갓 잡아온 이런 해산물을 먹는 것이야말로 섬 여행 최고의 즐거움이다.

제주에서 물질을 하러 왔다 정착한 어떤 해녀의 좌판. 해녀는 스무살 처녀시절 욕지도로 물질을 왔다 어부인 사내를 만났다. 벌써 30년도 전이다. 해녀는 한사코 자신이 발목을 잡혔다고 하는데, 어부는 늘 해녀가 발목을 잡았다고 한단다.

해녀가 자신이 잡아온 성게·돌멍게·굴을 까줬다. 남편인 어부가 잡아온 활고등어로는 회를 떠줬다. 성게알의 맛은 달디 달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돌멍게도 바로 잡아온 것이라 고소하다. 고등어는 너무 작아 맛이 덜 들었지만 이 또한 달다. 해질 녘 욕지도 선창가의 해산물 뷔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어느 특급호텔에서도 결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성찬이다. 술 한 잔을 마시자 온몸에 취기가 오른다.

출어했던 어부가 돌아왔다. 어부는 또 횟감을 잡아왔다. 어부에게 묻는다. 누가 발목을 잡았나요? 어부는 겸연쩍게 웃는다.

"제가 잡았죠."

해녀는 어이가 없는지 '푸하핫' 하고 웃는다.

"별일이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이네. 늘 내가 발목을 잡았다더니…."

해녀는 마침내 어부의 자백을 받아냈다. 기분이 좋은 것일까, 처녀 적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간 것일까?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난다. 어부가 볼락 한 마리를 회 떠 서비스로 가져다 준다. 해녀는 큼직한 전복 하나를 통째로 잘라 준다.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자백을 받아낸 준 보답이리라. 아, 이 정겨운 맛을 평생 어찌 잊을 것인가? G

글과 사진 강제윤 (시인)

여행수첩

[서울–통영] 경부고속도로→대전JC→통영대전고속도로
[춘천–통영] 춘천TG→만종JC→영동고속도로→호법JC→통영대전고속도로
[부산–통영] 남해안고속도로→진주JC→연화산→고성→통영

[서울–진주] 매일 무궁화호 2회, 새마을호 1회 운행.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영종합터미널까지는 버스로 이동.

서울 경부고속터미널(강남반포)–통영 하루 17회, 4시간10분 소요
서울 남부(시외남부)–통영 하루 25회, 4시간10분 소요
대전–통영 하루 10회, 3시간 소요 대구–통영 하루 21회, 2시간10분 소요
부산(사상)–통영 오전 6시5분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

통영항 여객선터미널과 삼덕항 두 곳에서 출항한다.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으니 출발 전 확인은 필수다.

[통영항 출항]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하루 5회, 1시간30분 소요
[삼덕항 출항] 삼덕욕지여객선터미널, 하루 7회, 1시간 소요

문의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봄 향기 머금은 찰떡궁합 도다리쑥국

예부터 '시식(時食)'이라고 해서 제철음식을 최고로 쳤다. 공자의 식습관을 기록한 〈논어(論語)〉 '향당편(鄕黨編)'에는 '불시불식(不時不食)'이라 하여 제철음식이 아니면 들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곳곳에 제사 때 시식을 올린다는 대목이 보이고, 우리나라의 풍속을 정리해 설명한 〈동국세시기〉에도 시기마다의 별미인 시식을 소개할 정도다.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계절 따라 나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해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수많은 식재료를 양식하는 요즈음에는 계절음식의 가치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이른 봄의 제철음식으로는 남해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도다리쑥국을 제일로 꼽고 싶다. 도다리쑥국은 봄의 신호다. 봄의 바다와 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 먹거리가 다 들어 있는 도다리쑥국 한 그릇이면 청양가절(靑陽佳節)을 송두리째 즐길 수 있다.

쑥의 향과 도다리의 맛은 참으로 궁합이 좋다. 원래 통영이나 거제사람들은 도다리미역국을 즐겨 먹는데, 이른 봄 해쑥이 올라올 때는 도다리쑥국을 해 먹는다. 계절의 맛을 즐기는 탁월한 미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닷가 양지바른 곳에서 아직 채 녹지도 않은 굳은 땅을 뚫고 쑥쑥 올라온 해쑥과 산란 후 새살이 돋아난 도다리를 함께 끓인 도다리쑥국은 바닷가 사람들의 봄을 맞이하는 준비이자 춘곤증을 이기는 보양식이다. 예전 궁핍하던 시절, 남해안의 어머니들은 봄이 되면 억지로라도 아이들에게 도다리쑥국을 꼭 챙겨 먹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봄도다리라는 별칭이 다 붙었을까?

쑥도 우리의 '단군신화'에 곰이 쑥 한 타래와 마늘 스무 개를 먹고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정도로 예부터 신비한 식물로 여겨왔다. 약으로 흔히 쓰기 때문에 약쑥이라고도 하는데, 식재료로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옛날에도 쑥국은 흔히 먹었던 모양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 이항복(李恒福)의 시문집인 〈백사집(白沙集)〉에는

"묵은 쑥 뿌리가 눈 밑에서 싹트려 할 무렵(雪下陳根艾欲芽)
향기로운 쑥국모임에는 봄기운이 듬뿍하네(香羹小會得春多)
우리 집 형제들은 그 때가 즐거웠기에(吾家兄弟當時樂)
꿈속에서도 분명 형제애를 느낀다네(夢裏分明感?華)"

라는 시가 수록돼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도다리쑥국은 쉽지 않다. 우선 제대로 된 도다리가 없다. 현지사람들이 '담배도다리'라고 부르는 자연산 도다리는 구경하기도 힘들다. 요즘은 양식 가자미 종류가 도다리로 둔갑한다. 쑥도 막 돋아난 여린 야생 쑥은 여간해서는 만나기 어렵다. 이 둘을 함께 취하기는 더욱 힘들고 그 기간도 아주 짧다.

그러니 시인 윤성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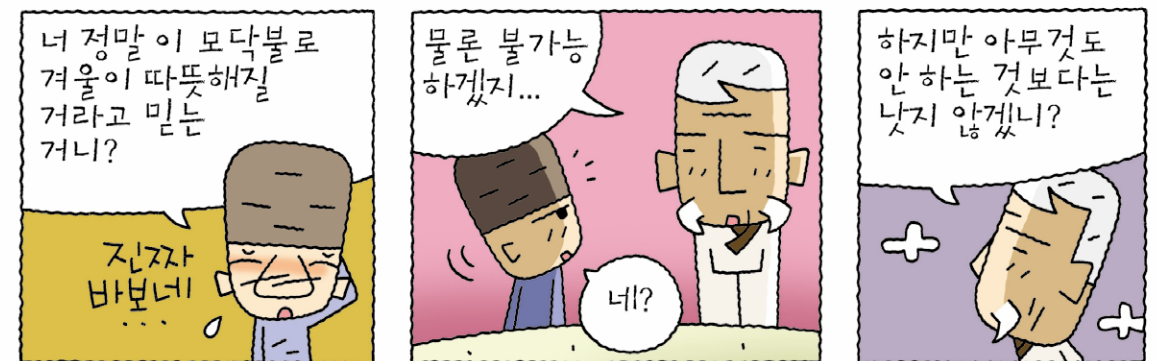
"봄도다리쑥국 한 숟갈만 떠먹어봐도 알겠다
남녘 바다에서 깨어난 봄이
저 어족과 어떻게 눈을 맞춰 봄바다에 춤추게 하는지를
해쑥 한 잎이라도 다칠세라 국을 끓여내
거칠고 메마른 몸들 대접하는 그의 레시피를"

이라고 노래한 '한 숟갈만 먹어봐도' 알 만한 도다리쑥국은 참으로 맛 한 번 보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런 불평만 늘어놓다가는 양식 가자미에 비닐하우스 쑥으로 끓인 국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철이 짧아 놓치기 십상이지만 남해안에서는 통영이나 거제의 몇 몇 음식점이 도다리쑥국으로 유명하며, 서울에서는 다동의 한 음식점에서 그 개운한 국 맛을 볼 수 있다.

글·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교수·음식문화평론가)

온 정성을 쏟는다면…

글과 그림 · 최영순

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러면 최선의 것이 돌아오리라. - M.A. 베레

조선 후기 39개 사건에 시대 넘나드는 교훈

〈조선후기를 움직인 사건들〉

신병주 지음
새문사 · 17,000원

1645년 소현세자의 죽음부터 1872년 지방지도 제작까지, 조선 후기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엮어낸 책이 나왔다. 신간 〈조선 후기를 움직인 사건들〉은 격동의 시기였던 조선 후기의 국내외 사회상을 주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 보여준다.

이 책은 'TV조선왕조실록' '역사스페셜' '한국사 전(傳)' 등의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자문하고 매주 KBS1 라디오 '신병주 교수의 역사 이야기'의 진행자로 나서 대중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는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2009년 펴낸 〈조선을 움직인 사건들〉이라는 책에서 조선의 건국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 항복이었던 삼전도의 치욕까지 다뤘다. 이번에 펴낸 〈조선후기를 움직인 사건들〉은 앞의 책에 이어 인조 때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 귀국한 소현세자의 죽음부터 1872년 지방지도 제작까지의 시대상을 보여준다.

책에서 다루는 사건은 모두 39개다. 주요 사건은 ▶1645년 4월, 소현세자는 독살되었는가? ▶두 차례에 걸친 예송논쟁 ▶숙종, 상평통보를 유통시키다 ▶서인 내 노론과 소론의 분열 ▶당쟁의 희생양, 인현왕후와 장희빈 ▶영조의 즉위와 탕평책의 추진 ▶반값 군포의 실현, 균역법의 실시 ▶1762년 사도세자의 비극 ▶개혁정치의 산실, 규장각의 설치 ▶베스트셀러 '열하일기'의 완성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 그 8일 ▶1800년 개혁 군주 정조의 죽음 ▶세도정치의 시작 ▶전국을 휩쓴 삼남의 민란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정책 ▶경복궁 근정전, 그 영광과 수난의 역사 등이다. 부록으로 1392~1875년의 국내외 주요 사건을 포함한 연표를 실어 이해를 돕는다.

책 속에서 다시 만나는 조선 후기 사건이나 인물 등을 살펴보면 현재와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인과 서인, 그리고 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는 식으로 끝없이 가지를 치는 조선 후기의 붕당정치는 현대정치에서 선거 때마다 명멸하는 정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영조의 탕평책은 지금도 인사의 원칙과 기준처럼 통용된다. 또한 정조는 특권상인에 의한 독과점 행위 폐지, 시전 상인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 나가는 등 소상인 보호정책을 편다.

이 책의 책장을 넘기다 보면 20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조선 후기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글 · 김지연 기자

새로 나온 책

엄마, 왜 그런 거예요?

클로드 알모 지음 | 엑스오북스 · 14,800원

아이들에게 질문은 의문과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아동심리 전문가인 저자가 부모가 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가려 뽑고, 그것들이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분석했다. 아이를 완전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되 세상의 규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윤영호 · 김경섭 · 고현숙 지음 | 궁리 · 12,000원

서울대 암연구소 윤영호 박사 등 세 명의 저자가 암 환자들이 갖추면 좋을 7가지 습관을 정리했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건강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조언한다. 암을 극복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사례도 곁들였다. 암 치료 과정에서도 더욱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북경일기

송훈천 지음 | 서교출판사 · 15,000원

IMF 이후 평생직장이던 현대자동차를 떠나 베이징에서 사업가로 정착한 저자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다. 중국에서 경험한 중국의 경제발전, 한국인과 중국인의 시각 차이, 그가 추진했던 북한사업 이야기 등이 구체적이다. 총 10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 특히 대기업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펼쳐진다.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음

사람마다 일상 입고 다니는 옷도 빛깔을 맞추어 입고, 자신의 체형과 품위에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으려고 마음을 쓴다. 어울려야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잘 차려 입은 멀쩡한 신사나 숙녀가 거칠게 말하거나 야비하게 행동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품격이 어울리지 않음을 비천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 아름다움은 어울림에서 나오고, 어울리지 않으면 추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이야 아름답거나 황량하거나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인간세상은 어울림(화합)과 어울리지 않음(불화)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대로 볼 수 있을 듯싶다.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어울림을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저질러진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선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악이 저질러진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울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어울림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연을 보호한다며 인간의 모든 발자국을 거부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이 아니다. 중국 당(唐)나라의 유우석(劉禹錫)이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이 있어야 이름난다"고 말한 것처럼, 자연과 인간이 어울릴 때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순신의 자취가 없었다면

중앙포토

오케스트라는 자신의 소리를 참아야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도 서로 어울려야 살 맛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지닌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자기만 위하는 욕심, 자기만 내세우는 주장을 적절히 통제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공경하는 예절이 살아나야 한다.

한산도는 이름 없는 섬이었을 것이다. 자연도 인간과 어울려야 그 아름다움과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사람의 어울림이야 작게는 나와 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크게는 나와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어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어울리면 한 집안이 화목하고, 한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울리고 동료 사이에 서로 어울리면 조직 전체가 화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지닌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사회에는 극단적 개인주의나 경쟁의식의 뿌리가 깊으니,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인가?

공자는 인격의 근본 덕성인 '인'(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이겨내고 예법을 회복할 것"을 가르쳤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울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만 위하는 욕심, 자기만 내세우는 주장을 적절히 통제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공경하는 예절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에게 사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남과 어울릴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신의 이념과 주장을 내세워 날 선 말투로 상대편을 비난하는 행동을 자주 만나게 된다. 남을 공경할 줄 모르고, 남과 어울릴 줄도 모르며, 오직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겠다는 독선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얼마 전 경주에 가서 고적을 찾아다니다 몇 차례 길을 잃었는데, 길을 묻자 버스 정류장까지 자기 차로 태워다주는 사람,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되돌아가는 사람을 잇달아 만났다. 그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낄 수 있어 한없이 기뻤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G

글·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